

ESG Sustainability Report 2022

KOREA UNIVERSITY MEDICINE

E | Environment

S | Social

G | Governance



고려대학교의료원
KOREA UNIVERSITY MEDICINE

About This Report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고려대학교의료원이 발간하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원칙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부합(In accordance with) 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특성에 따른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자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재무정보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맞춰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주요 데이터의 경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 데이터(2019년~2021년)를 수록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 2022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보고 범위는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산하 기관(의과대학,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을 포함하며, 보고 범위가 상이한 일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84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발행일 2023년 2월 24일

발행인 김영훈(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발행처 고려대학교의료원(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61)

발행부서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13, 6층)

Tel 02-3484-3913

Fax 02-3484-3919

홈페이지 <https://centerforesg.kumc.or.kr/main.do>



Contents

Introduction

President's message	04
Highlights	06
About KU Medicine	08
Our Mission&Vision	10
History	11
산하기관 소개	12

Special

Beyond COVID-19	22
-----------------	----

Approach to ESG

History of Contribution	26
Movement towards ESG	28
고려대학교의료원 ESG 관리 지표	30

Interactive Guide

고려대학교의료원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ESG Sustainability Story Book

Planet

#1 지구를 숨 쉬게 하는 우리의 약속	38
#2 우리가 '잔반 ZERO' 캠페인을 하는 이유	42

People

#3 서툰고 느릴지라도 우리는 함께 합니다	46
#4 치료와 배움을 함께, 병원이 학교가 되다	50
#5 로제타 홀의 정신, ESG 경영의 뿌리가 되다	52
#6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손길	56
#7 세계로 뻗어 가는 국제보건사업	60
#8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준비	66

Vision

#9 언제라도 어디라도 찾아가는 이동형 병원	70
#10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새로운 터전, 제4병원	72
#11 최고의 연구 개발로 만들어가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	74
#12 시대와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	76

Appendix

중대성 평가	78
이해관계자 분류 및 소통채널	79
주요 수상 및 인증 현황	80
UN SDGs	82
제3자 검증의견서	84

President's message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1928년 민족 최초의 여성 의학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로 출발하여, 100년 가까이 의료 소외계층을 인술로 치유하고 박애를 실천하며 시대의 아픔을 감싸 안아 왔습니다. 한 세기 전 의료에서 소외된 채 질병에 신음하던 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선각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며,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는 비전과 가치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으로서 혁신적인 모델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1년 5월 13일 의료원장 직속 전담 조직인 사회공헌사업본부를 출범하고, 국내외 의료봉사 및 재난지원 활동, 소외계층 대상 특별사업 등 그동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서 얻은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ESG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 25일 노사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직원 생활수칙'을 발표하였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2월에는 국내 의료기관 최초의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의 행보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였으며, 국내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1차 의료지원에 그치지 않고 광주와 인천, 경기도 안산 등지의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에 검진 버스를 포함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는가 하면, 2차 진료·시술 및 임신부의 출산을 돕고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전원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앞으로도 의료지원 활동의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며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피지, 탄자니아 등 해외 의료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차별 없는 조직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어울림아카데미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의 인식격차 해소와 장애인 교직원을 위한 병원환경 개선 활동, 지역사회 연계사업 및 의료봉사 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의료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9,000여 명의 모든 교직원들이 한결같은 열정으로 헌신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모든 역량과 힘을 한곳에 모아 인류를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

Highlights

미래의학 선도를 향한 최초·유일의 발걸음

<p>종합병원 세계 최초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ISO 14155) 획득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p>	<p>국내 유일 단일 의료기관으로 산하 2개 연구중심병원 3차 재지정 성공</p>	<p>국내 유일 단일 의료기관으로 산하 2개 연구중심병원 3차 재지정 성공</p>
<p>학교 법인 중 국내 최초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총 16개 자회사)</p>	<p>국제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협회(AAHRPP¹⁾) 전면 재인증(Full Reaccreditation)으로 국제 수준의 안정적 연구대상자보호 프로그램 정착</p>	<p>의과대학, 세계 연구중심대학 연합체(Universitas 21)의 국내 유일 회원 대학</p>
<p>국내 최초 세계의학교육연합회 (WFME²) 기준 의과대학 평가, 세계 의과대학 인증 시스템 대응</p>	<p>세계 최초 클라우드형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P-HIS³ 사업단' 진행</p>	<p>세계 주요 9개 대학과 함께 GAME(Global Alliance of Medical Excellence) 창립</p>

1) AAHRPP: 임상연구 분야 국제 인증기관인 국제 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협회(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 2001년 미국 정부 산하 임상시험 안전·윤리 관련 7개 부처의 후원으로 설립된 독립적 비영리 민간 인증협회로, 기관과 연구진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WFME: 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1972년 창립 이래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평가 기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의학교육단체입니다.
3) P-HIS: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여기서 'P'는 Post(차세대), Precision(정밀), Personalized(개인화), 'HIS'는 Hospital Information System(병원정보시스템)의 약자입니다.

ESG 실천을 위한 우리의 노력

<p>국내 의료기관 최초 ‘탄소중립’ 목표 선언 추진</p>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p> 	<p>‘잔반 ZERO’ 캠페인 등 일상 속 환경 실천 확대</p> 
<p>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국내 유일 파견</p> 	<p>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최초 의료지원</p> 	<p>의료원장 직속 사회공헌사업본부 출범</p> 
<p>의료원 산하 의과대학 및 안암·구로· 안산병원 ESG 위원회 출범</p> 	<p>로제타 홀 봉사단 발족</p> 	<p>남북 보건의료협력 실천 (w/(사)샘복지재단)</p> 
<p>스마트 의료기기-이동형 병원 공동 개발 연구 (w/현대자동차)</p> 	<p>보건의료 ESG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p> 	<p>국내 의료기관 최초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ESG 관리 지표 개발</p> 

About KU Medicine

고려대학교의료원 소개

‘초일류 KU Medicine을 향하여’

고려대학교의료원은 1928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학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로 출발하였습니다. 시대의 변곡점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의료 소외계층을 인술로 치유하고 박애를 실천해 온 지 벌써 95년이 지났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3개의 부속병원과 의과대학·대학원을 총괄하는 종합의료기관으로 교육, 연구, 진료, 사회공헌 등 전 분야에 걸쳐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며 성장하였습니다. 종합병원 세계 최초로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내에서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의료원 산하 2개의 연구중심병원이 3차 재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하 의과대학은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100위 내에 진입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다가올 100주년을 준비하며 ‘초일류 KU Medicine’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최고의 의술(The Best Medicine), 최고의 직원(The Best Personnel), 최고의 가치(The Best Value)를 바탕으로 민족과 세계에 공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2.0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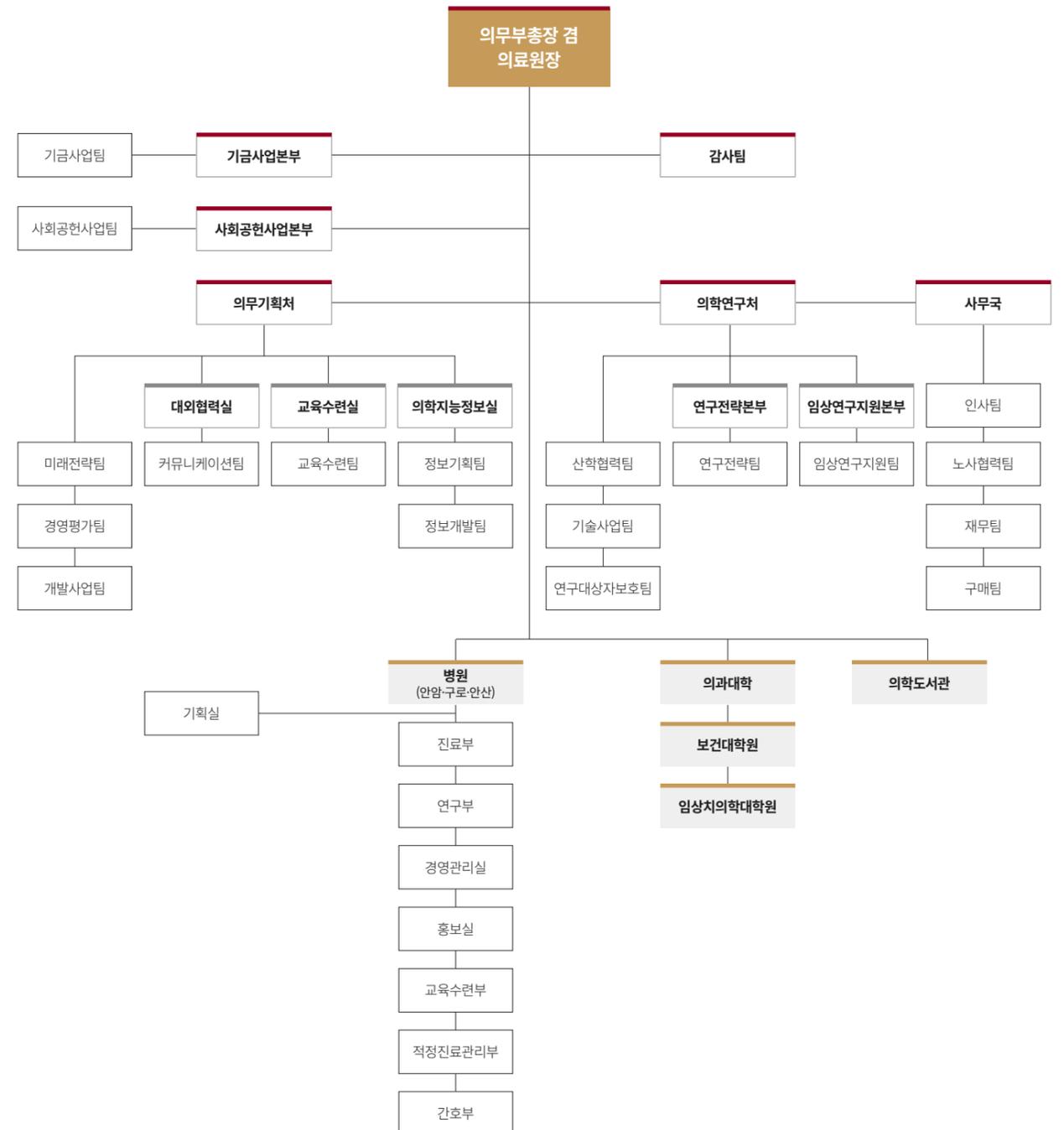
기관명	고려대학교의료원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61	
개원	1928년 9월 4일	
의료원장	김영훈	
임직원 수	8,968명(연보자료 기준)	
병상 수	2,933개(허가 병상수)	
연간 내원 외래환자 수	267만 4,273명(연인원)	
연간 내원 입원환자 수	83만 53명(연인원)	
연구과제 계약 (2020.03.~2021.02.)	건수	1,150건
	금액	1,129억 1,100만 원
기술사업화 성과 (2020.03-2021.02)	국내 특허출원	225건
	국내 특허등록	90건
	해외 특허출원	93건
	해외 특허등록	11건
	기술이전 계약	23건
	기술이전 수입	54억 6,100만 원
	기술료 수입	6억 2,500만 원
	연구자 창업	5건

산하 기관

(2022.03. 기준)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국내 최고 의학 교육기관으로서 미래의학을 선도할 융합형 창의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KU 메디컬 캠퍼스	안암 캠퍼스	
	구로 캠퍼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산하 병원 세 곳을 모두 캠퍼스화 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담 고영캠퍼스는 사회공헌사업의 전초기지로,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는 K-Bio 산학연 전진기지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안산 캠퍼스	
	청담 고영캠퍼스	
병원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안암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부속병원은 ‘환자 중심, 환자 최우선’ 가치를 실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로병원	
	안산병원	

KU Medicine at a Glance



Our Vision & Mission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라는 비전과 '생명 존중의 첨단의학으로 인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미션 아래 모든 교직원이 열정으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융합형 창의인재교육,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글로벌 리더, 개인 맞춤형 특화 진료,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4대 전략 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사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모든 교직원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전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

미션 생명 존중의 첨단의학으로 인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

전략체계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인간 생명의 존엄을 인식하고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우리의 강령을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 하나, __ 병원은 의료가 제1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 둘, __ 병원은 항시 구급 진료 태세를 완비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보호한다.
- 셋, __ 병원은 직원의 인화와 협동적 노력으로 친절하고 윤리적인 진료 분위기를 조성한다.
- 넷, __ 병원은 부단한 연구와 교육 훈련으로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환자의 신뢰를 높인다.
- 다섯, __ 병원은 진료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염 및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한다.
- 여섯, __ 병원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거래 행위를 공정 무사하게 처리한다.
- 일곱, __ 병원은 환자 진료의 비밀을 지키고 환자의 신앙적 관습을 존중한다.
- 여덟, __ 병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타 병원을 비방하거나 환자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병원윤리강령

History

100년의 역사를 향해 도약해 온 우리의 여정

<p>1928-1965</p> <p>1928 •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개소</p> <p>1959 • 국내 최초 신경외과학교실 창립</p> <p>1961 • 국내 최초 심전도 기기 도입</p> <p>• 국내 최초 요도를 통한 수술 실시</p> <p>1964 • 국내 최초 법의학연구소 개소</p> <p>1965 • 국내 최초 관절경 수술 도입</p>	<p>1970-1988</p> <p>1970 • 국내 최초 재활의학교실 창립</p> <p>1974 • 국내 최초 성형외과학교실 창립</p> <p>1976 • 세계 최초 신증후출혈열 원인체 한탄바이러스 발견</p> <p>1983 • 고려대학교의료원 발족</p> <p>1985 • 국내 최초 냉동정자 이용 인공수정아기 탄생</p> <p>1987 • 세계 최초 열 손가락 절단 환자, 모두 접합 성공</p> <p>1988 • 세계 최초 신증후출혈열 백신 한타박스 개발</p>	<p>1994-2015</p> <p>1994 • 국내 최초 대장암 복강경 수술</p> <p>1998 • 국내 최초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시행</p> <p>2001 • 국내 최초 한국형 인공심장 체내 이식 성공</p> <p>2004 • 국내 최초 부정맥센터 개소</p> <p>2007 • 세계 최초 신로봇수술법 개발, 국제 표준 인정</p> <p>2013 • 국내 유일 단일 의료기관 연구중심병원 복수 지정 (안암병원, 구로병원)</p> <p>2014 • 국내 최초 신종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백신 개발</p> <p>2015 • 국내 최초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평가</p>	<p>2018-2028</p> <p>2018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0주년 - 종합병원 세계 최초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SO 14155)(2019) - 아시아 최초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학술대회 개최(2019) - Medical Complex 실현, 글로벌 연구허브 - 최고의 사회적 국제 의료기관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내 최초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JCI) 5차 인증 획득(2021) - 스마트 인텔리전트 병원 구축 - 글로벌 10 The Best 육성 - 세계 최초 클라우드형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구축(2021) - 클라우드 전자무기록 시스템(EMR) 보건복지부 인증(2022) - 고도화된 인프라를 통한 글로벌 캠퍼스화 - 세계 50대 의과대학 도약</p> <p>2028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00주년</p>
--	--	---	--



산하 기관 소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윤영욱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서양의학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여성과 모성 보호를 위하여 여성 의사 양성이 절실했던 시대의 소명에 따라 1928년 개설된 조선여자의학강습소에서 기원하며 95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져온 의사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이러한 ‘민족과 박애’ 정신은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설립된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교와 1971년 병합되면서 더욱 강한 의과대학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의과대학은 50여 년 박애정신으로 인술을 펼쳤으며 의과대학 부속병원도 고려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안암병원을 제외하고는 구로공단, 반월공단, 여주 농공단지와 같은 의료 취약지역에 설립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전문성, 창의성, 윤리의식을 갖추고 인류 복지와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를 양성한다’라는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21세기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이를 교육 목표와 졸업 성과,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암병원, 구로병원 등 두 개의 국가 지정 연구중심병원을 지닌 유일한 의과대학으로, 진리 탐구를 통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우리의 철학은 ‘생명 존중의 첨단의학으로 인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미션과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는 담대한 비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명에 ‘다양한 학문 분야와 소통하고 융합하여 의생명과학을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사로서 역할과 함께 과학자로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 교육, 진료에서 모두 우수한 신입교수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제1의학과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최신 교육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2021년 의과대학의 새로운 캠퍼스가 된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는 2023년 내 공사를 진행하여 신약, 백신, 데이터 과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혁신연구단지가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건학이념인 ‘민족과 박애’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정신인 ‘자유, 정의, 진리’의 가치 아래 의대생들이 생명 존중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 보건에 기여할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윤영욱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하며 미래의학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생명 존중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100년 가까이 의학교육 본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우수 의과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국제적인 의학교육 수준을 확립하였습니다. 시대를 통찰하며 의학교육의 발전을 이끌어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현재 Universitas 21¹⁾의 국내 유일 회원대학이자 세계 100대 의대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학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고, 미래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 Universitas 21: 1997년 연구와 정보 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 연구중심 대학 간 네트워크로 총 17개국 25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요

(2022.03. 기준)

개원일	1928년 9월 4일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설립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73(안암동 5가)
병원장	제31대 윤영욱
인적 현황	[교육 분야]
	졸업생: 8,378명
	재학생: 649명
	전임교원: 503명 임상교원: 470명
인적 현황	[연구 분야]
	연구교수: 137명
	연구강사: 16명
	조교: 63명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석박통합): 1,197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과(2015~2019년 기준)

- 2021 THE 세계대학평가 90위
- 2020 QS²⁾ 세계대학평가 의과대학 부문 124위
- 2020 QS 세계대학평가 해부생리계 국내 1위
- 2017~2018 의사 국가고시 2년 연속 수석 배출
- 특허출원 건수 959건
- 임상시험 수행 2,243건
- 학술논문 10,459건
- 기술 이전 101억 원
- 외부 과제 수주 4,348억 원

2) QS: Quacquarelli Symonds,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산하 기관 소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시대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의학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여 미래의학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Universitas 21의 회원으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보건의료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연구중심 환경의 교육프로그램 협력과 국제 교류 등을 통해 국내 의학교육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제 의학교육 연구의 발전을 다지기 위한 첫 행보로 영국 노팅엄대학, 독일 뮌헨대학, 홍콩 중문대학 등 세계 유수 의과대학 9곳과 'GAME(Global Alliance of Medical Excellence)'란 이름의 국제 의학교육 및 연구 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9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양질의 의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해 왔습니다. 2012년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한 의과대학 본관을 완공하고, 2014년 문숙의학관을 준공하여 기초의학, 연구, 세미나 공간을 한곳에 집약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교육연구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의과대학 90주년을 맞이한 2018년에는 의학도서관을 정보, 학습, 그리고 소통의 공간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러닝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의학교육의 환경은 비단 의과대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모든 부속병원을 캠퍼스화하여 최첨단 시설의 원격 강의실을 구축하고 각종 세미나와 대규모 강의 등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의사의 역할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치료를 넘어 전문성에 기초한 기전연구, 신약 개발, 치료기기 개발 등 타 분야에서도 선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충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U21

Universitas 21 회원 대학

GAME

국제 의학교육 및 연구 협의회 창립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최첨단 스마트 러닝 공간

연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국내 최고 연구중심 의과대학으로서 수많은 연구개발 성과를 이루며 의학업계에 유의미한 발자취를 새겼습니다.

1971년 국내 최초로 법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적인 법 적용과 인권 시장에 기여했습니다. 1976년에는 세계 최초로 신증후출혈열 병원체를 발견하여 '한타바이러스'로 명명하고, 그 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1988년 마침내 백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백신은 '한타박스'란 이름으로 실용화되며 아시아 전 지역에 공급되었습니다.

2009년 발병한 신종인플루엔자는 지금의 COVID-19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범유행 전염병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백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였고, 이와 함께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도 연이어 성공시키며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메르스, COVID-19 등 신종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최전방에서 정확한 의학 정보 전달, 정책 제언, 국가 방역망 구축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법의학연구소 설립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국산화



세계 최초로 신증후출혈열 병원체 발견 및 백신 개발



산하 기관 소개 KU 메디컬 캠퍼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안암·구로·안산 병원 세 곳을 모두 캠퍼스로 조성하였으며, 이 외에도 청담 고영캠퍼스와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를 준공해 전문성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캠퍼스에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최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바탕으로 초일류 KU Medicine을 실현할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안암 캠퍼스

서울 바이오 허브의 중심

안암 캠퍼스는 의과대학과 안암병원을 아우르며, 최첨단 융복합 의학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의학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 치료를 넘어 급변하는 의료 업계를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전인적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목표와 함께, 미래의학이 실현되는 스마트한 병원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구로 캠퍼스

한국형 의료실리콘밸리

구로 캠퍼스는 구로병원을 중심으로 3년 동안 98개 창업을 이끌고, 309억 원의 투자, 그리고 225억 원에 달하는 정부 과제 수주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의료실리콘밸리'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구로 캠퍼스는 '중증환자 집중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증 의료 수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산 캠퍼스

안산 헬스시티 거점

안산 캠퍼스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생명 존중과 인류애를 뿌리 깊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려대학교의료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8년, 의과대학·간호대학 교육시설과 암병원이 준공되면 안산 캠퍼스는 안산시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8년 안산 캠퍼스 조감도



청담 고영캠퍼스

융복합 연구 전초기지

2021년 10월에 준공한 청담 고영캠퍼스¹⁾는 의료데이터 연구, 국내 의로기기 해외 진출 선도, 혁신형 홈헬스 케어 모델 공동연구 등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분야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공헌사업본부가 자리하여 의료봉사, 국제보건사업, 국가재난대응 등과 같은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어 나가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 청담 고영캠퍼스는 이영인 여사가 모친 고영자님의 유지를 받들어 기부한 부지에 탄생하였습니다.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K-Bio 산학연 전진기지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연구센터입니다. 신종 감염병,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관련 연구·교육·사업을 비롯하여 본격적으로 신약과 백신 개발 등에 매진하며 융복합 콤플렉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의 전초기지인 청담 고영캠퍼스



산하 기관 소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윤을식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경제, 정치 등 여러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여러 위험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올바른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탄소 발자국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개통된 안암병원과 안암역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병원에 사용되는 자원들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가는 이동진료, 농촌의료지원과 같은 국내 의료봉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등 해외 재난지역을 방문해 의료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봉사정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COVID-19로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도 현재의 감염병뿐만 아니라 미래 감염병에도 대응하고자 필요에 따라 조립 및 재사용이 가능한 전담 병상을 운영했습니다.

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모두에게 평등한 의술을 전하고자 했던 설립자 로제타 홀 여사의 뜻을 잇고자 환자를 최우선에 두며, 모두에게 차별 없는 인술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윤을식

환자 최우선의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환자 최우선, 우수한 의료진, 뛰어난 인술’이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 국제의료 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연이어 획득하면서 국제 기준 이상의 진료시스템 수준을 입증하였습니다. 안암병원은 최고의 연구중심병원으로서 고려대학교 내의 단과대학들과 병원, 인근 대학과 정부기관, 연구소 등 훌륭한 파트너를 아우르는 거대한 Health Technology R&D 개방형 생태계(Open Ecosystem)를 구축하고, 첨단 융·복합 기술을 진료현장에 도입하는 등 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여 미래형 병원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개요

(2022.03. 기준)

개원일	1941년 9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73(안암동5가)
병원장	제30대 윤을식
구성원	의료직: 579명 간호직: 1,388명 의료기술직: 262명 행정직: 128명 기타: 709명 총: 3,066명
면적	13만 6,017m ²
병상 수	1,048개(허가병상)

안암병원의 핵심 가치 ‘ENABLE’

- E** | Entirely trusted hospital
전적으로 신뢰받는 병원
- N** | New standard of patient safety and patient experience
환자 안전과 환자 경험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병원
- A** | As a member of society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병원
- B** | Bringing humanism to hospital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병원
- L** | Leading cutting-edge research
첨단연구를 선도하는 병원
- E** | Expert training hospital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병원

산하 기관 소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정희진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이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기나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직된 사회·경제 환경에서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국내 대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동참하고자 2022년 4월 ESG 실천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별로 원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수립했으며, 'ESG의 날 선포식' 및 'ESG 실천 캠페인' 등을 통해 교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생활 폐기물 감소,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의료봉사 실시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교육, 직무 및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직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리더십 라운딩, 상호존중 캠페인을 통해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환자의 질병 치료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이라는 의료기관으로서 1차 책임을 넘어 환자 외 가족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나아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환경·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G 경영의 폭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의료의 새 길에, 사회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정희진

한국형 의료실리콘밸리 구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1983년 의료 소외 지역에 의료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창기부터 '최상의 진료, 세계 수준의 연구, 최고의 인재 양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며 확연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전국 유일 중증외상전문수련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등을 운영하며 서울 최고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유일의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요

(2022.03. 기준)

개원일	1983년 9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구로동)
병원장	제20대 정희진
구성원	의료직: 550명 간호직: 1,424명 의료기술직: 270명 행정직: 125명 기타: 713명 총: 3,082명
면적	11만 9,780m ²
병상 수	1,075개(허가병상)

구로병원의 핵심 가치



산하 기관 소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김운영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의료취약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민족과 박애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일념으로 1985년 공단 밀집 지역이자 의료 불모지였던 경기도 안산에 100병상 규모로 개원하였습니다.

경기 서남부 지역의 발전과 함께 혁신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어 국내 최고 병원 대열에 합류했으며, 2023년 2월 현재 836병상 규모로 2,500명 이상의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중증·희귀난치질환 전문 핵심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산병원은 보다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질환별 전문 센터 및 클리닉 개설과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하며,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 STx', 로봇수술기 '다빈치 Xi'와 함께 2021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를 도입하며 지역 내 로봇수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기 서남권 내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최종 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지정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춘 병원임을 입증했습니다.

2022년 3단계에 걸쳐 기획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단기 마스터플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연구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대대적인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한창입니다. 향후 계획 중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에서는 신관 및 신별관 증축을 기획하고 있으며, 중증질환 특성화 센터의 확대 및 암병원 설립과 중증암 클리닉의 다각화 등 환자 맞춤형 초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의료기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미래의학 선도 병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김운영

시민의 신뢰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지역 내 유일 상급종합병원으로 40년 가까이 지역과 함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100개 병상으로 시작한 안산병원은 2023년 2월 현재 836개 병상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의 시간을 거쳐 왔습니다. 의료 불모지였던 안산의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우수 인재 확보, 다양한 임상연구 활동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안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간호대학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최첨단 암병원 건립 등 최고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요

(2022.03. 기준)

개원일	1985년 4월 15일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병원장	제19대 김운영
구성원	의료직: 379명 간호직: 1,089명 의료기술직: 200명 행정직: 104명 기타: 544명 총: 2,316명
면적	8만 2,344m ²
병상 수	810개(허가병상)

안산병원의 핵심 가치 'FAITH'

F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병원

A Advanced research
첨단연구를 선도하는 병원

I Investment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병원

T Trustful
믿음을 주는 병원

H Happiness
모두가 행복한 병원

Special Beyond COVID-19

한마음으로 COVID-19 팬데믹의 파고를 넘다

2020년 1월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초유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추었고 우리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심각하고 긴급한 비상 상황에서 병원과 의료진은 그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겹겹이 방호복을 입고 의료 현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비단 의료진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을 찾는 환자와 국민들이 일상을 멈추는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기 극복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던 것은, 모두가 희망을 품고 서로를 응원하며 노력한 덕분입니다. 벌써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COVID-19를 넘어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지금,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을 거름 삼아 더욱 단단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 COVID-19 대응 기록

#대구에 첫 의료진 파견

2020년 초 국내에서 COVID-19가 가장 먼저 발발했던 대구에 최초로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당시 심각하고 긴급했던 상황에서 COVID-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진 6명을 대구동산병원에 파견했으며,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에도 총 17명의 의료진과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서울 지역 사립대학병원으로는 첫 인력 파견으로,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파견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앞장섰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 COVID-19 의료봉사단 파견

- 1) 대구경북2생활치료센터(농협 경주교육원)
 - 기간: 2020. 3. 3. ~ 3. 31.
 - 인원: 의사 3명, 간호사 6명, 행정직 8명 등 총 17명
- 2)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 기간: 2020. 3. 10. ~ 4. 19.
 - 인원: 의사 2명, 간호사 4명 등 총 6명
-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 기간: 2020. 3. 24. ~ 5. 15.
 - 인원: 의사 10명, 간호사 5명, 행정직 9명 등 총 24명
- 4) 고려대학교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초기 운영 지원

#SK하이닉스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안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에 이어 고려대학교의료원은 SK하이닉스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봉사단을 파견하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연 매출 30조 원 규모의 '국가 대표 산업 현장'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SK하이닉스와 선별진료소 구축에 합의 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COVID-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민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민간 사이의 협력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마리아안퍼스코리아와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구축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2년 2월 서울시·(재)사마리아안퍼스코리아와 함께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공동 대응과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안암 캠퍼스에 긴급모듈형 병원인 '서울형 소아전용 외래센터'를 운영 하였습니다. COVID-19 확진자 중 대면 진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전용 진료 시설로, 처차·검체 채취·약품 관리 등 감염병 대응 및 입원 치료까지 가능한 감염병 종합 의료 체계 구축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여 공로, 옥조근정훈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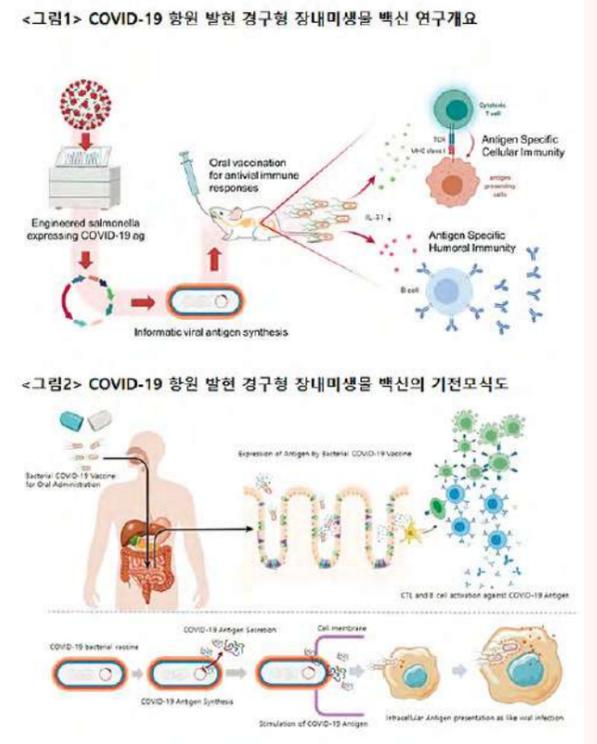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최원석 교수(감염내과)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의 진료와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2022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최 교수는 감염내과 전문가로 COVID-19 유행 초기부터 생활치료센터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등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해왔습니다.

#국내 최초 COVID-19 백신 임상시험 공로 표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희진 병원장은 국내 최초 COVID-19 백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GBP501(SK바이오사이언스) COVID-19 백신의 임상시험 책임자로서, 백신 개발을 이끈 공로로 '2022 임상시험의 날' 기념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COVID-19 연구 성과와 교육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면역연구소는 COVID-19 항원을 발현 하는 장내미생물을 이용한 경구형 백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백신 분야 국제학술지 <VACCINES> 2022년 1월에 게재되었으며, '재조합 살모넬라 균주를 이용한 COVID-19 백신균주'라는 명칭으로 국내 특허출원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COVID-19 백신 '정량 자동 추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과다과소 투여 등 오접종을 예방하고 백신 잔량을 최소화하는 등 백신 부족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바이러스병연구소(박만성·김진일 교수팀)는 2020년 COVID-19 환자의 검체로부터 다수의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COVID-19의 기초 기전 규명과 약물 재창출, 진단기술,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획기적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센터장 김우주)는 올바른 백신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일반인 대상의 공개 백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유튜브, 고려대 교수학습개발원 유튜브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땀방울로 버틴 시간들

COVID-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봄부터 의료진은 물론 전 교직원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은 모두 '희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내 보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한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COVID-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기에, 오늘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힘내라! KOREA!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영상 바로가기



“시설팀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도 했고, 큰 문제 없이 확진 환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_감염관리실 부팀장 김수현

“여기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_외과중환자실 간호사 최은영

“위험한 일인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_감염관리실 간호사 김현주



“환자 동선을 분리하고 긴급히 가설 벽체를 설치해 음압격리실이나 다른 진료 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구분했습니다.”
_시설팀장 박범철

“선별 기능을 강화해서 본연의 중증 응급환자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_응급의료센터장 이상우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 따로 격리된 장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모두 체력을 잘 비축하면서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_신경외과 교수 임동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_감염내과 교수 송준영

“병원에 어떤 환자가 와도, 동요하지 말고 우리 일을 열심히 하자고 서로 이야기했어.”
_미화팀 이영자

“꼭 해야 하는 일인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_기획실 양행진



“서로 합심하여 다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가면 좋겠습니다.”
_안전요원실 오의영

“무사히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_응급의료센터 보안팀 이종한

#힘내라! KOREA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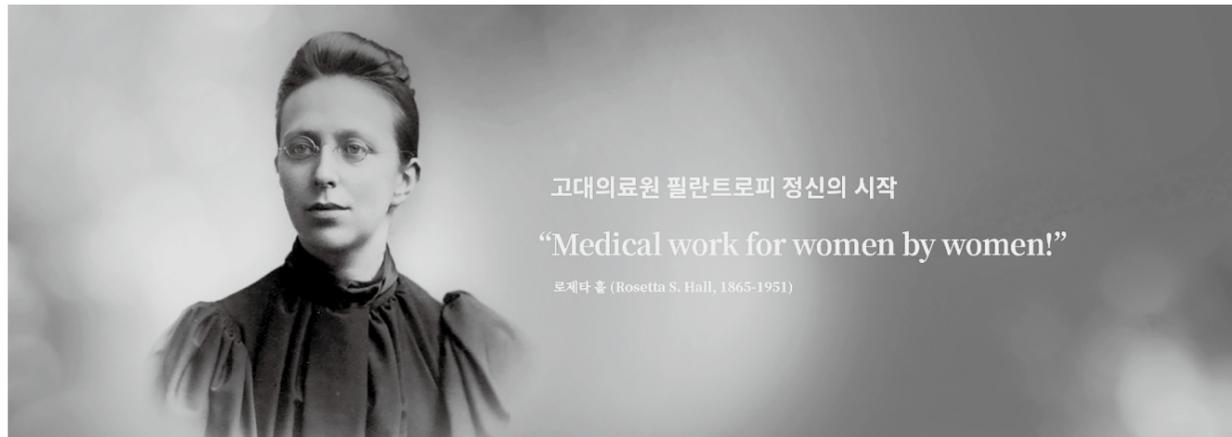
출처 : 고대병원 유튜브 2020. 3. 23. [힘내라! KOREA!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중에서 고려대학교의료원 교직원들의 이야기

Approach to ESG

History of Contribution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최고의 사회적 의료기관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인술을 통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역사의 변곡점마다 답을 제시하며 의학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태생부터 민족과 박애 정신에서 출발한 의료원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고, 모든 인류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회공헌단을 통해 인류 사회에 기여하며 초일류 KU Medicine을 완성하겠습니다.



봉사와 박애 정신에서 출발한 의료원의 역사

로제타 홀 여사의 정신을 이어받다

서양 의학의 도입 초기, 유교문화로 인해 여성이 남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여의사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로제타 홀 여사와 민족의 선각자들이 함께 각고의 노력으로 1928년 9월 4일 탄생시킨 최초의 여의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였습니다.

여자의학전문학교를 키워낸 김탁원, 김정희 선생

김정희 여사는 로제타 홀 여사와 함께 1928년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였습니다.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남편인 김탁원 선생과 강습소를 운영했으며, 1980년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김정희장학금'을 제정하여 기초의학과 임상연구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 기부로 경성여의전문을 키운 우석 김종익 선생

김종익 선생은 거액의 재산을 사회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193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자의학강습소를 의학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물이 결핵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슬픔과 평소 조선 의학의 발전을 염원했던 마음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지에 따라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기부의 역사 속에 탄생한 병원들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에는 안암병원(구 혜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 모두 사회적 가치를 위한 숭고한 마음과 기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우석 김종익 선생의 기부를 시작으로 쓴 국내 최초의 역사

안암병원(구 혜화병원)은 1937년 김종익 선생의 기부로 최초의 여자의학교육기관 부속병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혜화동 시절 6.25 전쟁 및 4.19 혁명을 겪을 당시 구호병원으로서 피난민과 부상자 치료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냉동 정자 수정,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등 다수의 국내 최초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독일의 개발도상국 원조기금으로 설립

구로병원은 1983년 독일 정부로부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으로 승인을 받아 독일 차관(1,750마르크)으로 당시 의료취약지구였던 구로산업공단에 설립되었습니다. 산업재해 환자가 많았던 시대, 열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의 손을 세계 최초로 모두 접합하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의료 소외 공업도시지역에서 시작

안산병원은 1985년 구로병원과 함께 독일 차관으로 의료취약지구였던 반월동(현 고잔동)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안산지역은 미개척지로 공업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막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로제타 홀로부터 시작된 고대의료원의 사회공헌 의지가 드러나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기부를 통한 의료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설립된 **청담 고영캠퍼스**는 기부자 모친인 **故 고영자 여사**의 사회공헌 유지를 받들어 기부된 청담동 토지에 설립되었으며, 미래의학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전초기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는 바이오메디컬을 선도할 혁신 연구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 등 많은 이들이 미래의학을 향한 뜻을 이루고자 기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부의 역사 속에 탄생하였습니다. 민족의 의학발전을 염원하는 우석 김종익 선생의 기부와 의료 소외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원조기금 등이 그 단초가 되었습니다. 설립 100주년을 앞에 둔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러한 기여의 역사를 이어받아 앞으로도 의료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역사

1928

조선의학강습소 개소

1983

고려대학교의료원 발족

1983

구로병원 개원

1985

반월병원 개원

1986

반월병원을 안산병원으로 개칭

2020

안암, 구로, 안산병원 제4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2021

2021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수상 (종합병원 부문 5년 연속 수상)

2028

고대의료원 100주년, 제4병원 완공 예정



Approach to ESG

Movement towards ESG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1년 사회공헌사업본부를 출범하며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범 기관 차원에서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지원 및 ESG 실천으로 활동 분야와 대상을 넓히며 사회공헌 로드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원 산하 의과대학 및 안암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에 각각 ESG 위원회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앞으로도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단발성 사회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본부 출범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1년 의료원장 직속의 사회공헌 전담 조직인 '사회공헌사업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사회공헌사업본부는 고려대학교의료원 ESG 경영의 센터로서 역할을 하며 의료지원 및 ESG 실천의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하 병원 및 기관들과 함께 ESG 경영 실천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ESG 활동 범위를 넓히고 내실을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선언 추진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탄소중립 선언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에 의뢰하여 2023년 2월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선두

우크라이나 난민 및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지원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1년 9월 탈레반의 압박을 피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0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기여자의 80%는 여성 및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의료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이 중에는 임산부 7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접경 지역인 폴란드 현지에 의료지원 봉사단을 파견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에 대한 2차 진료(광주, 안산, 인천 고려인마을)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내외의 재난 지원 및 위기대응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과대학 및 산하 3개 병원, ESG 전담 위원회 구성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산하 기관별로 ESG 활동을 위한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여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어울림아카데미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4월 구로병원이 'ESG 실천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안산병원도 'ESG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의과대학도 11월 'ESG 실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는 조직 내외부로 ESG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친환경 경영 실천 방안 수립(Environment)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Social) △투명한 의사결정과 다양성에 기반한 조직문화 구현(Governance)을 통해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 의료기관 최초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ESG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ESG 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의료기관 맞춤형 ESG 관리 지표 개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기관에 맞는 ESG 관리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GRI Standards, SASB(Health Care Delivery) 등 국내외 ESG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ESG 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보고서 30~33페이지 '고려대학교의료원 ESG 관리 지표' 참조

ESG 및 다양성위원회로 확대 개편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공헌위원회를 ESG 및 다양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사회공헌과 ESG 활동에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위원회는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모든 교직원과 환자,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지향합니다. 개방성과 포용성, 형평성을 기반으로 시스템과 인적자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구성원 개인의 발전과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ESG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ESG 과제 발굴 및 실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ESG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ESG 경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이번 공모에 총 17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9개 팀이 수상하였습니다. 이 중 실행 가능한 활동을 선정하여 의료원 및 산하 3개 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ESG 실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별 보건의료 ESG 기여도에 따른 포인트 적립 플랫폼, Kumes(의료원)
- 고려대학교의료원을 위한 우리 함께 ESG(안산병원)
- 환자와 함께하는 병원 내 일반폐기물 업사이클링 캠페인(구로병원)
- 환자 중심 스마트 진료 시스템_PPD+I 모델을 중심으로(안암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ESG 관리 지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기관에 최적화된 자체 ESG 관리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지표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권 관리체계 수립 등 전 세계적으로 필수 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지표와 그 외 환자친화경영, 지역사회공헌 등 의료기관으로서 관리해야하는 지표를 검토하고 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가중치를 설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참고 인덱스는 GRI Standards(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Health Care Delivery), K-ESG 등 국내외 ESG 가이드라인과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등 ESG 평가지표를 고려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관리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분류	인덱스	지표 가이드라인	단위	기준	가중치	참고 인덱스
환경	환경정책 및 규정	환경경영 추진체계, 세부 방침 등 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화학물질 등) 정책 및 규정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3%	DJSI, MSCI 등
	온실가스 목표대비 감축률	온실가스 감축률 =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이전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전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100	%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2%	공급망 K-ESG 등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재생에너지 사용량/총 에너지 사용량)*100	%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1%	K-ESG, CDP 등
	용수 재활용률	(용수 재활용량/총 용수 사용량)*100	%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2%	CDP, KCGS 등
	폐기물 재활용률	(폐기물 재활용량/총 폐기물 발생량)*100	%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2%	GRI, K-ESG, DJSI, KCGS, KRX 등
노동	정규직 비율	(정규직 인원 수/전체 임직원 수)*100	%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2%	K-ESG, KCGS 등
	여성 임원직 비율	(여성 임원 수/전체 임원 수)*100	%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3%	DJSI, KRX, SASB 등
	장애인 고용 비율	(장애인직원 인원 수/전체 임직원 수)*100	%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3%	GRI, K-ESG, DJSI, KCGS, KRX 등
	남녀 동등급여 비율	전체 여성직원 급여 기본급 평균/전체 남성직원 급여 기본급 평균	배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4%	DJSI, KCGS 등
	임직원 만족도	임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	점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3%	MSCI, EV 등
보건안전	안전보건규정 보유	기관 자체 안전보건규정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5%	K-ESG, KCGS, EV 등
	산업재해율	(재해자 수/연 평균 근로자 수)*100 - 재해자 수: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통해 제출된 재해자 수 - 연 평균 근로자 수: 해당 연도의 월별 근로자 수의 평균	%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5%	K-ESG, KCGS 등
	안전관련 법규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건수에 대해 처분이 확정된 건수	건	건수당 5점 감점	5%	KRX 등
인권	인권정책 보유 및 공개	국제기준(UN '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 핵심협약', 'OECD 책임있는 사업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한 인권 정책 보유 여부 및 대외 공식적인 입장 제시 - 적용 대상: 임직원, 사업관계(공급업체, 파트너 등)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4%	K-ESG, DJSI, KCGS, EV 등
	인권 관리체계 수립	인권 리스크 관리(제도, 신고 프로세스, 실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4%	DJSI 등
	인권 관련 신고 건수	고충상담소 내 인권 관련 신고 건수	건	건수당 5점 감점	3%	-
	제 3자 인권영향평가	제 3자 기관이 인권영향평가 진행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4%	DJSI 등

고려대학교의료원 ESG 관리 지표

분류	인덱스	지표 가이드라인	단위	기준	가중치	참고 인덱스
지역사회공헌	사회공헌 정책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공헌 추진 계획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3%	KCGS, K-ESG, DJSI 등
	지역사회투자금액	지역사회를 돕는 자선단체 가입비/지역사회 파트너 조직에 대한 보조금, 기부(현금, 제품, 서비스 또는 장비)/공식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비용 등	원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4%	GRI, DJSI 등
	직원 1인당 봉사시간	(총 봉사시간/총 임직원 수)	시간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3%	DJSI 등
정보보호	정보보호 관리 규정	정보보호 위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아야 하며, 목적, 대상 범위, 정보 접근(개인정보 열람권 등), 문서 승인, 책임 등 정보보호를 위한 내용 포함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4%	KCGS, DJSI, EV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 건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건	세부 건수별 산식 기준	3%	GRI, SASB, KRX 등
	개인건강정보보호 위반 건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중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개인의 과거/현재/미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 기록 등 고객 개인 건강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 보호 위반 건수	건	세부 건수별 산식 기준	3%	SASB 등
환자친화경영	의료비용 공개 및 안내 정책	의료 서비스 전, 시술 및 수술 등 환자에게 가격 공개 및 통지 관련 정책 - 의료비용 정보를 대외 공개하는 범위, 포맷, 매커니즘 - 외래 및 입원 환자 모두 포함 - 안내한 비용의 포함 범위, 그 외 정확한 전체 가격 등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5%	SASB 등
	환자 피해보상기구 및 보상절차 관련 정책	의료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환자 피해보상절차 마련 여부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4%	SASB 등
	환자 만족도 점수(응급환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점수	등급	세부 등급별 산식	3%	DJSI 등
	환자 만족도 점수(환자경험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중 전반적 평가 점수	점	목표 대비 달성 수준 평가	3%	DJSI 등
지배구조	ESG 관련 위원회 보유	ESG만 전담으로 하는 조직 보유 여부	Y/N	보유 여부	2%	EV, DJSI 등
	윤리규정 보유 및 공시	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선언, 윤리원칙,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 등을 담은 윤리규정(행동강령 제외) 보유 및 공시 여부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3%	KCGS 등
	내부 신고제도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제도 보유 여부	Y/N	연 1회 이상 검토 기준	2%	SASB, DJSI, MSCI, KCGS, EV 등
	반부패 관련 위반 건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의료기기법」 등 부정부패 및 뇌물 관련 법 위반 건수	건	세부 건수별 산식 기준	3%	DJSI, EV 등

DJSI: S&P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MSCI: MSCI Global Sustainability Index
 KCGS: 한국ESG기준원
 EV: EcoVadis

K-ESG: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K-ESG: 산업통상자원부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dex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KRX: 한국거래소
 (-): 자체 개발

ESG Sustainability Story Book

ESG Sustainability Story Book에는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동참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을 12가지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인술을 통해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시대의 아픔을 감싸 안은 선각들의 뜻을 계승하는 이 이야기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심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워 푸르른 숲을 이룰 그날을 꿈꾸며,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모든 임직원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lanet	
#1 지구를 숨 쉬게 하는 우리의 약속	38
#2 우리가 '잔반 ZERO' 캠페인을 하는 이유	42

People	
#3 서툴고 느릴지라도 우리는 함께 합니다	46
#4 치료와 배움을 함께, 병원이 학교가 되다	50
#5 로제타 홀의 정신, ESG 경영의 뿌리가 되다	52
#6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손길	56
#7 세계로 뻗어 가는 국제보건사업	60
#8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준비	66

Vision	
#9 언제라도 어디라도 찾아가는 이동병원	70
#10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새로운 터전, 제4병원	72
#11 최고의 연구 개발로 만들어가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	74
#12 시대와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	76

ESG Sustainability Story Book

Planet

Story #1 지구를 숨 쉬게 하는 우리의 약속

Story #2 우리가 '잔반 ZERO' 캠페인을 하는 이유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의 과제입니다. 탄소 저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교직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며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2022년 3월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 중

#1 지구를 숨 쉬게 하는 우리의 약속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현한 ‘환경 위기 시계’¹⁾가 있습니다. 자정에 가까울수록 위기의식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이 시계의 2022년 한국 시각은 9시 28분입니다. 이미 위험 단계에 들어선 시계 바늘은 인류가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바꿔 나가는 일이 우선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을 겪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역시 환경 위기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 각국의 정부 연구소 시민단체 등 소속 환경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측정되며, 환경재단에 따르면 2022년 설문에는 세계 127개국 1,876명이 참여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 노사 ‘기후위기 대응 공동 선언’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가 함께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고려대학교의료원 김영훈 의무부총장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려대학교의료원지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에 합의하고,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직원 생활 수칙을 마련하고, △원내 각종 설비 장치의 에너지 효율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시행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노사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 의료원 내 각종 설비 장치의 에너지 효율화
- 교직원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 시행
- 교직원 대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 활동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직원 생활 수칙

1. 재활용을 위해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기
2.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3.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메일 삭제, 화면 절전 모드 등)
4. 난방온도는 2도 낮추고, 냉방온도는 2도 높이기
5. 종이 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2022년 3월 25일

고려대학교의료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려대학교의료원 지부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 및 질병 연구 교육 확대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병이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의학적 연구 활동과 교육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건강 영향 상관성 연구 구로병원은 2021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환경유해인자-건강 영향 상관성 예측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환경 및 대기질 오염 문제가 범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과 인체 간 상관관계 연구로 건강 영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를 통해 확보되는 성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연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정책 수행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연구 다각화 보건대학원과 환경의학 연구소는 한국리서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의료 연구 다각화를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해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전문성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제 도출과 연구 활동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성 질환 교육 및 홍보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는 천식,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인형극>과 <온라인 환경보건 이동학교>를 개발하여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아토피 천식 예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실천 캠페인

2022년 ‘지구를 지키기 위한 ESG 실천 약속’ 캠페인을 시작하며 구로병원은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필요한 종이 사용 자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전원 끄기 등을 한마음으로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실천, 잔반 줄이기부터 먼저 직원식당 잔반량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이 잔반 줄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만 줄여도 총 17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약제팀 비닐봉투 사용량 줄이고 친환경 소재로 대체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약제팀과 영양팀이 함께 원내 사용 중인 비닐봉투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원외 약국들과 간담회를 열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교직원부터 종이컵 NO! 교직원 공용 음료 이용 시설에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을 치우고, 직원 휴게공간에서는 개인컵 또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 사용량 저감을 위해 부서장 회의에서도 꼭 필요한 출력물 외에는 지참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출력물 대신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병실 생활용품 나눔 캠페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방안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들이 잉여 병실 생활용품을 나누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독제, 일회용 장갑, 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환자들이 쓰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을 나눔으로써, 폐기가 아닌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름철 캐주얼 데어로 에너지 절약 6월부터 9월까지 캐주얼 데이를 시행하여 여름철 시원한 옷차림을 통해 체감온도를 낮추고, 실내 온도는 26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플로깅 챌린지로 환경 실천 안산병원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1인 1봉 플로깅 챌린지’를 실시했습니다. 교직원들이 함께 걷거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사업 재개 _ 멸균분쇄 시설 구축 방안도 고려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실천에 있어 의료폐기물 관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을 지나며 의료기관으로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암병원은 COVID-19 유행으로 인해 잠시 보류했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사업을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으로, 현재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건립 예정인 제4병원에 의료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멸균분쇄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스마트병원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ocus on

구로병원의 환경경영 실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SG 실천위원회를 발족하고, 전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_ 정희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원장 정희진)은 ESG 경영을 본격화하며, 특히 환경경영 실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SG 실천위원회(위원장 신정호)를 출범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교직원들이 근무 중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과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에는 ‘ESG의 날 선포식’을 열고 환경경영 실천을 선언했으며, 앞으로 매년 이날을 ‘ESG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는 뜻입니다.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선언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 교직원은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매년 6월 5일을 구로병원 ESG의 날로 정하고,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하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겠습니다.
- 하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 하나,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 하나,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미래세대,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위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022년 6월 5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직원 일동

#2 우리가 '잔반 ZERO' 캠페인을 하는 이유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이 세계 공통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전사적으로 환경 실천을 선언하며 산하병원을 중심으로 '잔반 ZERO' 캠페인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소비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환경 실천은 시작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비중이 8~10%나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운행되는 자동차가 생산하는 연간 배출량의 두 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순히 폐수나 악취를 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패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때 나오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1만 6,000여 톤으로, 생활쓰레기 중 30%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코리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일 경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177만 톤이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승용차 47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이처럼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기아 문제 등 또 다른 사회적 이슈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큼니다.

기후위기 해결 기여를 위한 '잔반 ZERO' 캠페인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고려대학교의료원에서는 2022년 '잔반 ZERO'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잔반 ZERO' 캠페인은 직원식당 등 의료원 내의 음식물 소비 시 잔반량을 줄여나가는 캠페인으로, 특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식당 잔반량 줄이기'를 ESG 실천 과제로 삼은 구로병원의 경우, 직원식당의 입구와 퇴식구에 관련 내용을 모니터에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퇴식구에는 전날 버린 잔반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잔반량 대비 기아 인구수 등을 표기해 잔반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산병원 역시 독려 문구를 식당 입구와 배식대, 식사 테이블, 퇴식구 등에 설치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병원의 잔반 감소 목표를 설정해 달성 현황을 공유하고, 잔반을 줄일 시 스티커를 배부해 이를 모든 사람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앞으로 캠페인을 더욱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8~10%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비중

1만 6,000여 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

177만 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일 경우 감소 예상 온실가스 양



INTERVIEW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영양팀 김원경 부팀장



잔반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교직원들의 탄소 저감 생활 실천을 돕겠습니다.

Q.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잔반 ZERO'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2022년 4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범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및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ESG 실천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를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 개념이 급부상하고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10%가 단체 급식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ESG 실천위원회 차원에서 탄소배출 저감화 급식 문화와 자발적인 생활 수칙 확산을 위한 '잔반 ZERO'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잔반 ZERO' 캠페인 시행 전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A. 캠페인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잔반량 감소가 수치상으로 눈에 띄게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이블별 김치통 비치를 건의하거나 일부 대면 배식 메뉴 제공 시 본인 식사량에 맞게 배식을 요청하는 등 잔반량 감소를 위한 교직원들의 참여 의지와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10%, 단체 급식소에서 발생 '수요일은 다 먹는 날(수다날)' 등 이벤트 운영 '자가 잔반량 체크 리더기' 설치·운영 예정

Q. 직원식당의 잔반을 줄이기 위해 영양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A. 우선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 교직원 식당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평일 중식은 자율 배식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적절한 양을 알 수 있도록 직원식당 입구에 1인 적정 분량을 안내합니다. 잔반 감소 및 나트륨 저감을 위해 2013년부터 150cc 식기로 교체한 굵그릇도 지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다 먹는 날(수다날)' 등의 이벤트를 운영하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들의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선언문'을 배포하고, 교직원 포탈에도 ESG 실천 캠페인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직원식당 입구와 퇴식구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에도 잔반 줄이기를 위한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는데, 특히 퇴식구 쪽에 전일 발생한 총 잔반량과 1인당 발생한 잔반량을 게시함으로써 잔반으로 인한 구로병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Q. '잔반 ZERO'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앞으로는 ESG 실천 과제에 대한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퇴식구에 '자가 잔반량 체크 리더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이용해, 교직원들이 완식 후 카드 리더기에 신분증을 태그하면 일정 마일리지 적립해 포상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기 설치 및 전산 개발은 완료되었으며, 세부 운영안이 확정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잔반량 감소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ESG 경영에 임직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잔반 ZERO' 캠페인



ESG Sustainability Story Book

People

- Story #3** 서툴고 느릴지라도 우리는 함께 합니다
- Story #4** 치료와 배움을 함께, 병원이 학교가 되다
- Story #5** 로제타 홀의 정신, ESG 경영의 뿌리가 되다
- Story #6**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손길
- Story #7** 세계로 뻗어 가는 국제보건사업
- Story #8**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준비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라.

_ 로제타 홀 여사(Rosetta Sherwood Hall)

#3 서툰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함께 합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어울림아카데미위원회를 발족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교직원들을 위한 병원 환경 개선, 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지원 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직원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선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같은 연도 전체 인구 고용률인 61.2%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COVID-19의 여파로 기업과 기관들의 채용 규모가 감소하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153명의 장애인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에 선도적인 모델을 정착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교직원들을 위한 병원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청각장애인 편의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 준비

장애인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최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 운영을 계획하고 2023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이는 기존 운영 중인 병원의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화면 속 아바타가 음성과 함께 수어로 수납·처방전 등의 정보를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의 병원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의료원은 청각장애인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의료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러 사회공헌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수어 통역 서비스 계획



농아인에 대한 인식과 진료 환경 개선 제안

_ 할리우드 배우 트로이 코처 홍보대사 위촉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2년 9월 미국 할리우드 배우 트로이 코처(Troy Kotsur)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1년 개봉한 영화 <코다(CODA)>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코처는 청각장애인 배우로 평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코처는 홍보대사로서 2년간 농아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농아인 교육 및 진료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코처가 제안한 농아인 진료를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와 병원 인프라 개선 의견에 대해 실행 방안을 계획하고, 2023년 제주에서 개최될 '세계농아인대회'에 대한 의료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코처는 "농아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수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농아인을 위한 활동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물 포커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는 34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 장애 3급의 김용구씨는 한 사람의 직원으로 동등한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총무팀 박천원 실장은 편견을 걷어 내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동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서툴고 느리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한 지 두 분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INTERVIEW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총무팀 김용구님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구입니다. 세 살 때 앓은 후천성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다소 불편한 지체 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Q. 안암병원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으며,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2019년 12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병원 후문에서 출입자 문진 확인을 담당했고, 현재는 사무실에서 직원 출입카드 등록과 CCTV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Q. 업무 진행 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나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 주어진 일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4시간으로 한정된 근무시간이 장애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과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많은 장애인 근무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일하며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 앞으로 더 해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사회 구성원이자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자체가 뿌듯하고 보람됩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확대되어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동등하게 일하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Q.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장애인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직원으로 인정하며 함께 일하는 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Q.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은 물론 밖에 나와 활동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나 언론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홍보에 더욱 힘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일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INTERVIEW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총무팀 박천원 안전요원실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총무팀 안전요원실장 박천원입니다.

Q. 총무팀 안전관리실에는 몇 명의 장애인 직원이 있으며,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나요?

A. 현재 총무팀 안전관리실에 소속된 장애인 직원은 총 7명입니다. 직원 출입증 등록이나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으며, 원내 휠체어 및 이송 침대 수거와 청소를 맡은 직원도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원내 택배 반입이 어려워 각 부서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일하면서 느낀 점은 어떠한가요?

A. 소통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여 그만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업무 적응을 잘 하여 부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직원은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 감동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Q.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A. 부서별 필요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주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규정에 의거 근무복을 지급하여 장애인 직원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직원들이 편견을 버리고 서로 소통하며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식 개선 교육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현업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필요한 부서에 지속적으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전 직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고려대학교의료원이 되길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 소통하며 이해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동행은 가능합니다.



#4 치료와 배움을 함께, 병원이 학교가 되다

■ 병원은 어른들만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¹⁾ 치료에 집중하느라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은 학습 결손은 물론이고 정서적 발달 기회도 놓치기 쉽습니다. 장기 결석으로 인해 퇴원 후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벅차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고 정서적 발달 기회를 제공하며 퇴원 후 다시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하여 전국의 대형병원들은 병원학교²⁾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도 병원학교를 운영하며 건강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이 필요하여 학교생활이나 학업 수행 등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소아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병을 앓는 건강장애 학생 수는 1,798명입니다.
2) 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병원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원적학교의 출석을 인정받아 정규교육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꿈과 학습을 지원하는 병원학교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암병원의 어린이꿈교실, 구로병원의 남촌드림클래스, 안산병원의 유경꿈이룸병원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단원들이 주요 교과목 수업을 돕고 있으며, 음악치료·미술치료 등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 생활과 치료 과정에 정서적 발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퇴원 후 적응 과정까지 전담 의료사회복지사와 의료진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암병원 '어린이꿈교실'

2020년 11월 설립
2022년 3월 기준 약 505명의 소아청소년 환자 지원

+ 구로병원 '남촌드림클래스'

2008년 3월 설립
2022년 3월 기준 약 1만 1,401명 소아청소년 환자 지원

+ 안산병원 '유경꿈이룸병원학교'

2022년 5월 개교
경기도 교육청 연계 경기남부지역 첫 병원학교



[병원학교 담당자들의 말말말]

각 산하 병원의 병원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학생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심정옥 소아청소년과 교수 (남촌드림클래스 병원학교장)



치료를 받는 동안 웃음을 잃지 않고 꿈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병민 소아청소년과 교수 (유경꿈이룸 병원학교장)



장기간 입원으로 심리적 환기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즐거운 심터가 되었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이기형 소아청소년과 교수 (어린이꿈교실 병원학교장)

앞으로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의 병원학교는 주요 교과목 수업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특별활동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환자와 보호자의 반응이 좋았던 가정의 달 행사나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같은 시즌별 행사도 계속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병원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ESG 활동 아이디어 콘테스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생이 제안하고 병원이나 병원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의과대학생과 학생이 멘토, 멘티가 되어 질병 극복과 앞으로의 학습 과정을 함께 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을 펼쳐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병원학교 외에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소아청소년 대상 사업인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 장학금 지원 사업,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로제타 홀의 정신, ESG 경영의 뿌리가 되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오랜 사회공헌 활동의 근간에는 로제타 홀 (Rosetta Sherwood Hall) 여사의 봉사와 박애 정신이 있습니다. 로제타 홀 여사는 조선 말기, 조선에 들어온 의료 선교사로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 문화로 여자가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여의사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로제타 홀 여사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의료활동'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의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홀 여사의 각고의 노력으로 1928년 9월 4일에 최초의 여의학교 '조선여자의학강습소'가 탄생했고, 이는 이후 현재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간절한 일은 이 땅에서
여의사를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Medical Work for Women by Women!

_ 로제타 홀 여사(Rosetta Sherwood Hall)



로제타 홀 여사의 정신을 계승한 '로제타 홀 의료봉사단'

서양 의학이 막 보급되던 조선에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을 위한 의료활동에 매진한 로제타 홀 여사가 보여준 인술과 박애 정신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계승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자세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안산병원은 2016년부터 각각 로제타 홀 여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딴 봉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꿈씨봉사단, 농촌의료봉사단의 이름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꾸준히 해 온 안암병원도 2022년 9월, 기존 봉사단의 역량을 집약해 확대·개편한 '로제타 홀 봉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이렇듯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로제타 홀 여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봉사의 정신으로 인술과 박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의지, 사회공헌사업본부 창단

'로제타 홀 봉사단'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그간 해온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집약한 것이 바로 2021년 9월 창단한 사회공헌 사업본부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사회공헌사업본부 창단은 이례적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그간 수행한 국제보건사업 및 국내외 재난지원, 소외계층 대상 특별 프로그램, 교육사업 등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사회공헌사업본부를 창단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 기업과는 다른 의료기관만의 차별화된 ESG 수행 전략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사회공헌사업본부를 통해 로제타 홀 여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품격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공헌사업본부는 이미 COVID-19 의료봉사단 파견과 아프리카 부룬디 학생 어학 연수 지원사업,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대상 의료지원단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외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청담 고영캠퍼스에서 열린 사회공헌사업본부 출범 기념 심포지엄



로제타 홀 의료봉사단 활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1) 2016년 6월: 로제타 홀 봉사단 발족
- 2) 매년 의과대학 학생을 모집하여 해외 봉사활동 진행
- 3) 해외 의료봉사
 - 2016년: 필리핀, 말라위, 몽골 등에서 의료 및 교육, 문화 봉사활동
 - 2017년: 말라위, 짐바브웨 등에서 의료 및 교육, 문화 봉사활동
 - 2018년: 필리핀,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의료 및 교육, 문화 봉사활동
 - 2019년: 필리핀에서 의료 및 교육, 문화 봉사활동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1) 2016년 10월: 로제타 홀 센터 설립
- 2) 해외 의료봉사
 - 2017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도네시아 6회 방문 5,387명 진료
- 3) 국내 의료봉사
 - 2017년 4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봉사 실시
 - 2018년 5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봉사 실시
 - 2019년 4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봉사 실시
- 4) 기타 사업
 - 외국인 환자 통역 지원사업: 내원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 통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 및 이주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사업
 - 저소득 다문화가정 건강검진 사업
 -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치료 사업 등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1) 2022년 9월: 로제타 홀 봉사단 발족
 - 기존 봉사단 확대·개편 '로제타 홀 봉사단' 발족
- 2) 국내 의료봉사
 - 2022년 9월: 강원도 임계·도계 지역에서 농촌사랑 의료지원활동



인물 포커스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의료기관만의 ESG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2021년 5월, 고려대학교의료원 청담 고영캠퍼스 건립과 함께 정식으로 출범한 사회공헌사업본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박건우 교수가 본부장을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오랜 기간 의료봉사를 해온 박건우 본부장은 사회공헌사업본부를 통해 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고 ESG 경영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INTERVIEW

박건우 사회공헌사업본부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

Q. 대학병원이 사회공헌사업본부를 별도로 창단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A. 고려대학교의료원의 가장 큰 명제는 ‘의료 그 자체의 가치로 돌아가자’입니다. 현재 세계는 COVID-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을 겪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등 국제 정세도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본부는 이러한 위기를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지닌 ‘의료’라는 정체성으로 극복하고 건강과 평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병원이 가져야 할 고유의 본질적 가치는 진료를 통해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진료실이 아닌 다른 모습의 의료 시스템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Q.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전에도 꿈씨봉사단, 농촌봉사단 등을 통해 국내외로 다양한 의료봉사를 해왔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의료봉사에서 중심이 된 철학이 있을까요?

A. 의료기관은 태생적으로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시작됩니다. 의료진들은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 언제든지 기꺼이 나와 진료하고, 환자 케어에 열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의료진들은 고려대학교의료원만의 인술과 박애의 정신으로 그 뜻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태생적으로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설립되며, 봉사는 의료인의 숙명입니다.

Q. 사회공헌사업본부의 본부장직을 제안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수락하셨나요?

A. 처음 사회공헌사업본부장직을 제안 받았을 때, 사회공헌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회공헌’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역사와 함께 태동하였음을 떠올리며, 100년 전 의료에서 소외돼 질병에 신음하던 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선각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면서 한층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모델의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 오랫동안 의료봉사를 해온 의료인으로서 봉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봉사는 의료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타인을 돕는 일이지만, 오히려 봉사자가 사람의 이해심, 배려심 등 다양한 감정과 삶의 경험을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료인들 누구나 의과대학을 입학하기 전부터 봉사를 꿈꿉니다. 그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사회공헌사업본부는 창단 후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한 일입니다. 2021년 9월 16일, 특별기여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소재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1차 진료가 필요한 아프간인들을 대상으로 약 6주간의 의료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탈레반의 핍박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390명의 아프간인의 80%는 여성 및 18세 미만의 아이들로 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출산이 예정된 임산부 7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차 의료지원은 이후 10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의료지원단 파견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 두 명을 같은 달 14일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로 전원시켜 의료지원을 이어 갔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계기로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생명 존중 가치 실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의료봉사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9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봉사단



Q. 앞으로 사회공헌사업본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A. 의료기관 최초로 다양성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직군과 사람들이 공존하는 의료기관에서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고려대학교의료원이 누구나 존중받고 평등한 위치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본연인 ‘의료’에 관한 사항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개발한 스마트 의료기기-이동형 병원(꿈씨버스, 아이오닉 5)을 이용하여 의료 취약계층과 도서산간 지역까지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병원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고려대학교의료원이 다가갑니다. 현재 사회공헌사업본부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국제보건사업, 통일보건의료사업, 국가 재난대응 등 각종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봉사를 지속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교육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진 정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잘 훈련된 사회공헌사업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람과 생명력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사업본부 활동을 통해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추구하고 있는 ESG 경영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범 기관 차원의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지원 및 ESG 실천 등의 사회공헌 로드맵을 마련하여 활동 분야와 대상을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Q. 의료진의 선배로서, 그리고 사회공헌본부의 수장으로서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료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A. 전 세계가 모두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있기에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6·25 전쟁을 겪었고, 해외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풀 차례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과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사회공헌 문화를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과 고려대학교,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이 함께 앞으로도 솔선수범하여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6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손길

————— 좀처럼 꺼지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불씨로 인해 많은 피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참히 짓밟혀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던 피난민들을 위해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료지원 봉사단도 함께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치유하며 의료지원 봉사단은 다시 한번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410명

우크라이나 난민 진료 인원 수

61종, 8만 4,066개

COVID-19 백신 등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제공된 의약품 수

10종, 865개

COVID-19 진단 검사 키트 등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제공된 의료물품 수

700유로

우크라이나 난민 치료를 위한 후원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폴란드에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료지원 봉사단.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의료지원 봉사단 파견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하늘에 짙은 어둠이 깔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 세계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양국의 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주변 인접 국가로 이동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전쟁의 공포와 삶의 불안감 속에서 열악한 피난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매일 추위와 싸우며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기본적인 생활필수품과 의료 서비스 등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개전 후 12일이 지나자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와 달라는 현지 한인 교민들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수년간 국제보건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늘 고민해 왔던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주저 없이 국경을 넘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2022년 3월 16일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봉사단 파견을 공식 선언합니다. 의료지원 봉사단은 국내 최초로 3월 19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우크라이나의 최접경 지역인 폴란드에 입성합니다. 모두 국제구호 경험이 있는 의료지원 봉사단은 15일 동안 폴란드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고려인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주요 NGO와 한인회, 한국 선교단체를 찾아가 응급키트, 갑상선약 등 의약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상실을 겪은 난민들의 아픔까지 치유하다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자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던 폴란드의 의료시스템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 또한 절실한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난민캠프에 많은 이들이 모여 의료지원 봉사단의 손과 발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피난민들은 오랜 기간 외지 생활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과 당뇨 및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장년 여성은 목에 큰 혹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악성일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증상을 발견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정철웅 교수는 “현지에서의 활동이 제한돼 있어 안타까웠지만 최대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의사로서 소임을 다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COVID-19에 감염되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가까스로 의료지원 봉사단을 찾아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이 신속히 치료제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살뜰히 살펴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폭격 장면을 목격한 한 고려인 아이는 틱장애가 심해지고, 동원령으로 인해 함께 오지 못한 아빠의 부재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전쟁의 참상은 잊은 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봉사단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하였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고려인들에게도 지속적인 의료지원

과거 소련의 강제 이주로 인해 아픈 역사를 겪은 고려인들이 이번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또다시 쓰러린 고통의 현실에 놓였습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해 국내로 입국한 고려인은 1,200여 명(2022년 5월 기준)에 이릅니다. 광주, 인천 등 고려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난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낮은 환경과 언어 장벽,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본격적으로 국내 체류 고려인을 위한 의료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2022년 7월 19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찾아가 108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X-ray, CT 등 검사를 진행하고 각 질환에 따른 투약과 처방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6일에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의료지원 봉사단을 꾸려 안산 땃골 고려인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근골격계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 의료진을 투입해 55명의 고려인에게 집중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의료지원 봉사단은 인천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장내과, 신경과 등 전문 의료진은 인천 함박마을을 방문하여 99명의 고려인의 건강을 알뜰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으로 초청하여 수술 및 외래 진료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ini Intervie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또 다시 삶을 터전을 잃은 채 난민이 되어 고국에 돌아온 고려인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사단의 의료지원으로 건강을 회복한 고려인 테티아나 씨와 니나 씨가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떠난 저는 피난 생활로 인해 정맥류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지원 봉사단은 이러한 상태의 저를 진료하시고는 조속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도저히 수술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무료로 수술 받게 해주셨고, 그 덕분에 몸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도 매우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고려대학교의료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_ 밀리에바 테티아나(여. 35세)



한국에 온 후 고려대학교의료원에서 무료 진료를 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양쪽 다리에 정맥류를 앓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는 고려대학교의료원에서 제공해 주신 무료 수술 덕분에 몸과 마음 모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의 배려와 선한 마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베풀어주시는 지원과 친절함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_ 안 니나(여. 46세)

고국에 돌아온 고려인 난민들에 대한 의료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월 안산 땃골 고려인마을을 찾아 55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안산병원 봉사단.



2022년 3월 고려대학교의료원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봉사단 발대식



치유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로제타 홀 여사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박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모든 의료지원 활동을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로제타 홀 의료지원 봉사단장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활동을 진두지휘한 조원민 교수는 발대식 당일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폭격으로 쑥대밭이 된 도시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기를 외부의 지원과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만큼, 이제는 우리가 들려줘야 할 때입니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분들에게 미약하나마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면 그 어느 것이 비할 수 없는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7 세계로 뻗어 가는 국제보건사업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권리조차 지킬 수 없는 나라와 국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첨단 디지털 의료 혁신을 외치는 이 시대에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은 필수 예방 접종과 같은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맨몸으로 감염병과 싸우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보건사업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정부 또는 지역 등을 구호하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중에도 특히 국제보건사업은 의료 소외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국가에 선진화된 의료 관리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08년 10월 처음으로 국제보건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2010년보다 빠른 시기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첫 국제보건사업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와 짐바브웨였습니다. 약 3주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와 더불어 약제와 물품을 기증하는 등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에 참여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재준 교수는 당시 두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보츠와나는 평균 수명이 39세로, 에이즈 감염률이 36%, 영아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61명이었습니다. 특히 손씻을 틈도 없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환아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짐바브웨의 에이즈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의 구김살 없던 표정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픔을 견디는 아이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밝아 오하려 크게 감동했지요.”

이후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국제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중에 의료보건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진료 및 보건위생 교육재활 치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의료진을 국내로 초청해 임상연수를 진행하고 의료기술을 전수하여 본국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참여형 실천을 통해 10년 넘게 국제보건사업을 수행해오다 2018년 기념비가 될 만한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브룬디 최정숙 여고 졸업생 연수 지원

2018년 9월 10일 아프리카 부룬디 땅에 ‘최정숙 여자고등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곳에 ‘최정숙’이라는 낯선 한국 이름의 학교가 건립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인 고(故) 최정숙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로서 일평생 제주 여성 교육에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빈국인 부룬디 공화국은 40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생활수준이 매우 척박하며, 특히 뿌리 깊은 남성 중심 문화로 인해 많은 여아들이 강제 폭력과 조기 임신, 조혼, 학업 단절 등 차별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정숙 여자고등학교는 부룬디 공화국에 세워진 최초의 여자고등학교로, 바로 최정숙 선생의 교육 정신을 근간으로 부룬디 여성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자 세워졌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최정숙 여자고등학교 설립 소식을 접하고, 이들을 도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9월 최정숙 여자고등학교 졸업생 2명이 제주대학교에서 6개월간 한국어 연수를 하게 되었고, 이들의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두 학생이 미래 부룬디의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1년 후인 2022년 10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24명의 부룬디인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과 진료 등 의료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시 진료 중 유산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산모를 발견하여 즉시 응급 처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생각지 못한 유산 사실을 알리며 함께 슬퍼했다. 앞으로도 보건 의료 인식이 낮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를 돕는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라오스 온드림 실명 예방 사업 진행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0년부터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열악한 지역의 안(眼)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첫발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된 '라오스 온드림 실명 예방 사업'입니다. 라오스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안 질환 유병률이 높고 전체 실명의 65%가 백내장에서 기인합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라오스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라오스 정부와 함께 안과 전문의 양성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초청연수, 임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제로 라오스의 의사들은 백내장 153건과 일반 안과 질환 45건의 수술을 성공시켰습니다. 현지 의료진 초청연수 과정이 끝난 후에도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라오스의 의사, 간호사,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돈보기를 지원하는 등 안 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안 보건 의료 환경 지원

라오스 온드림 실명 예방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연이어 다음 단계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손잡고 2022년 4월부터 약 2년간 예정으로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안 보건 지원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전체 안과외사는 30명으로 이중 공공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2명에 불과하며, 안과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시스템, 인프라 및 의료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마다가스카르의 열악한 안 보건 의료 환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아제라 국립병원 안과외사 2명을 국내로 초청해 19일간 초음파 수정체 유착술 등 선진 백내장 수술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는 안 질환 진료 및 수술을 비롯하여 실명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술 기자재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마다가스카르와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2016년부터 현지 병리의사를 국내로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6월에는 COVID-19 사태에 무방비였던 마다가스카르를 위해 COVID-19 실험 도구 구축을 위한 정보지원과 함께 음압기 2대를 기부하였습니다. 당시 주마다가스카르 대사는 서신을 통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덕분에 마다가스카르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되었다”라며 “머나먼 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마다가스카르 안 보건 지원 활동의 하나로 현지 의료인들에게 의학전문서적 300여 권을 기부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마다가스카르 온드림 실명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안 보건 의료인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Focus on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구 공동체 위한 국제보건 실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수많은 국제보건사업을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의 상황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인도주의 실천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늘 고민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한국 역시 오랜 기간 원조 수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45년 해방 직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집중 원조를 시작으로, 1960년대 유상원조를 거쳐 2000년 마침내 DAC 수혜국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 55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안산병원 역시 1980년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독일 차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수혜국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공여국이 된 후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보건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WHO에서 제시한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실현을 미래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UHC는 UN의 세 번째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인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의 복지 증진' 달성을 위한 측정지표이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앞으로도 전 세계 인류 건강의 질 향상에 앞장서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류애를 실천하겠습니다.

약 38억 원

사회공헌사업본부 출범 후 국제보건사업 수주 규모

사회공헌사업본부 추진 국제보건사업

사회공헌사업본부 추진 과제	사업기간	발주기관	규모
마다가스카르 온드림 실명 예방 사업	2022.04.~2023.12.	현대차 정몽구 재단	5억 원 (연간 2억 5,000만 원)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 종료평가 사업	2022.07.~2023.0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7,000만 원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 2차 컨설팅 사업	2022.08.~2023.0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8,000만 원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	2023.01.~2027.12.	한국국제협력단(KOICA)	26억 원
라오스 온드림 실명 예방 사업	2020.04.~2022.03.	현대차 정몽구 재단	3억 5,000만 원
2023년 아프리카 3개국 타당성 조사	2021.12.~2022.0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1억 원
에티오피아 모자보건증진 및 건강보험정책 협력사업 종료평가	2021.08.~2022.0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8,000만 원
예비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미얀마 감염병 대응)	2021.01.~2021.0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2,000만 원

전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우리의 길

2008

- 2008. 10. 보츠와나·짐바브웨 의료협력
- 2009. 10. 케냐 의료협력 활동
현지에 전기시설이 없어 특수 장비세트를 구비해 출국, 매일 100여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
- 2010. 08. 피지 나이셈비투 빌리지 사회봉사단 의료지원
외래, 수술, 치과 등 진료 분야를 구분하여 하루 평균 100여 명의 환자를 치료
- 2010. 08. 몽골 의료봉사
몽골 가장 큰 규모의 도르노트 도립의료원을 방문해 복강경 수술, 안과, 미세 수술 진행 및 의술 전수

2010년 몽골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



2012

- 2012. 02. 리비아 의료봉사
알자위야 국립병원 환자 903명 치료, 복강경 수술, 뇌-허리-선천성 기형 등 고난이도 수술 총 30여 건 진행
- 2012. 07. 필리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지원
- 2012. 10. 몽골 International Medical Center(IMC) 임상연수
- 2013. 02. 미얀마 의료봉사
- 2013. 10. 몽골 IMC 병원에 국내 의료진 파견
- 2014. 03. 아프리카 차드 아베세 의료봉사
차드 아베세병원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15명을 수술 및 500여 명 환자 진료
- 2016. 06. 카자흐스탄 의료 진료회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유방암 등 중증질환 환자 100여 명 진료
- 2016. 07. 아프리카 말라위 의료봉사
- 2016. 08.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숨 의료봉사

2012년 리비아 의료봉사 현장



2018

- 2018. 03. 캄보디아 의료봉사
현지답사 후 초음파 검사로 총 30여 명의 환자 상태를 파악, 그중 최종 8명의 환자 수술
- 2018. 04. 마다가스카르 의료지원
안타니나리보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장비 전달, COVID-19 사태 후 음압기 2대와 자동염색기, 봉합기 등 기증
- 2018. 07. 꿈씨봉사단 로제타 홀 의료봉사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말라위음세체 보건소에서 의료봉사 실시
- 2018. 08. 미얀마 의료 봉사
양곤의 KBC 병원에서 총 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언청이 수술 및 'Cleft(구순구개열) in Myanmar' 캠페인 실시
- 2018. 08.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건립 지원
- 2018. 10. 베트남 의료봉사
베트남 최빈곤 지역 선루 마을에서 진료봉사 및 보건교육 실시
- 2019. 09. 몽골 의료봉사
울란바트르 아가페병원 환자 치료 및 100여 명의 환자가 한국에서 신장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019. 09. 부룬디 최정숙초등학교 건립 지원
- 2019. 10. 캄보디아 의료봉사
고려대학교안산병원에서 캄보디아 헤브론 메디컬 센터 심장수술 의료봉사 실시

2018년 캄보디아 소아 심장수술 의료 봉사 현장



2020

- 2020. 04. 라오스 온드림 실명 예방 사업
라오스 안과전문의, 일반 안과의사 등 의료인력 수련 과정 지원
- 2020. 06. 마다가스카르 '코로나 진단센터' 구축 지원
구로병원, 진단키트 및 실험실 구축에 필요한 물품 지원
- 2021. 02. 말라위 카무즈 국립병원 의료지원 사업
말라위 최초 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의료진 파견
- 2021. 07.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졸업생 어학연수 지원
- 2022. 03. 국내 최초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파견
- 2022. 04. 마다가스카르 온드림 해외 실명예방 사업
- 2022. 07. 우크라이나 고려인 전쟁난민 의료지원
광주 고려인마을에 의료지원
- 2022. 08. 우크라이나 고려인 전쟁난민 의료지원
안산 '땃골 고려인마을'에 의료지원
- 2022. 10. 라파엘클리닉 외국인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장비 지원
천안 모이세분소에 1차 진료 장비 지원
- 2022. 10. 인천 함박마을 고려인 전쟁난민 의료지원
- 2022. 11. 라파엘클리닉 외국인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장비 지원
김포 이웃살이(2차), 파주 엑스더스(3차) 진료 장비 지원
- 2022. 12. 마다가스카르,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 COVID-19 진단키트 지원
마다가스카르 웰 인터내셔널, 캄보디아 헤브론병원 등에 전달

2020년 6월 마다가스카르 대사가 '코로나 진단센터' 구축에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감사 서신을 전달하고 있다.



#8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를 위한 준비

한반도가 분단된 지 77년, 반세기를 훌쩍 지나 백 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문화, 언어 등에서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의료 분야의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수준뿐 아니라 의료제도, 의료문화, 의료용어까지 그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어, 통일 이후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족과 박애의 정신을 이어온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선도 의료기관으로서 이러한 실정에 역할과 책임을 느끼고, 한반도의 통일이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고려대학교의료원은 통일한국보건의학연구소 개소 후 2016년 국내 최초로 의대대학원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탈주민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는 국내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외과전문의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통일시대의 미래의학을 준비하는 한민족 대표 병원으로서의 비전을 갖고, 통일이료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들이었습니다.

2021년 사회공헌사업본부를 발족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통일이료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2018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 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 이후의 보건의료 활동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된 탈북민의 질병 코호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도 계획 중이며, 북한이탈주민 의사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고려인 대상의 의료봉사를 북한이탈주민 의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은 그러한 계획 중 하나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처럼 지속가능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으로 건강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분단국의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2016년 신설한 고려대학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이 진행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심포지엄



통일이료의 출발, 남북의학용어사전 출간

‘통일이료’를 향한 첫 번째 걸음은 용어의 통일입니다. 북한의 의학용어는 해열제를 ‘열내림약’이라 하고, ‘지혈’을 ‘피뻘’이라고 하는 등 한글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의학의료용어의 간극은 통일 이후의 소통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당장 북한이탈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0년 3월,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남북의학용어사전 출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남북용어사전은 이미 1996년 ‘남북한 의학용어집’의 첫 출간 이후 5차 용어집까지 출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용어집이 남한에서만 작업한 사전이었던 반면 이번 편찬 작업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 의료인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남북의학용어사전의 출간은 단순한 용어 정리 및 용어 통일을 넘어 남북 간의 소통을 의미하며 건강한 한반도를 만드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의 격차 없는 한반도 의료 환경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현재도 ‘먼저 온 통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입니다. 이들은 남한 주민들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오랜 기간 상이한 생활습관과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 양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 이주 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체의 연쇄적 변화로 지속적인 건강검진 및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경제적 부담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 온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최근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새터민 의료지원 기금’을 마련해 지금까지 별도의 모금 캠페인 없이 약 5,200만 원의 정성을 모았으며, 안암병원을 주축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건강검진과 필수 검사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1,3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33명의 저소득층 당뇨 환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안산병원에서는 2018년, 안산단원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기적인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통일이료’의 기본이자 미래 건강한 한반도의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북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교류를 위한 노력

고려대학교의료원은 통일 이후의 남북 간 의료 격차 해소 준비를 위해 북한의 의료 수준이나 실정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의료 분야 지원 사업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샘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사단법인 샘복지재단은 2022년 6월,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샘복지재단은 대북지원 NGO로 북한의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는 재단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실천하고, 통일보건안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참여 ‘통일보건의료학회’는 국내 유일의 통일보건의료 관련 유관 학회로, 국내외 통일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정보와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학술 기관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매 학회에 참여, 북한 의료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북한의 NCD(Non-Communicable Diseases, 만성비전염성질환)를 중점으로 한 ‘북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통일보건의료 최신 연구동향’을 주제로 정보를 나누었고, 하반기에는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한 전략행동계획과 남북 보건의료인력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북한의 COVID-19 현황에 대한 관심 COVID-19는 의료 수준이 열악한 북한에 매우 치명적인 팬데믹으로, 통일이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의료기관으로서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2020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에서는 ‘북한 코로나19 실태 및 남북보건의료협력 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한반도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2년에는 고려대학교통일연구원준비단과 공동으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향후 국내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북한 의료 분야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재활의학과 김동휘 교수



ESG Sustainability Story Book

Vision

- Story #9** 언제라도 어디라도 찾아가는 이동형 병원
- Story #10**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새로운 터전, 제4병원
- Story #11** 최고의 연구 개발로 만들어가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
- Story #12** 시대와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환자 중심 병원’, ‘미래의학이 구현되는 스마트병원’을 탄생시키겠습니다.

_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9 언제라도 어디라도 찾아가는 이동형 병원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긴급모듈병원 구축이나 찾아가는 이동형 병원 운영이 그런 사례에 포함됩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지자체나 사회단체,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시대 특화된 긴급모듈병원 구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2022년 서울시와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와의 업무 협약으로 대학 내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 인력을 투입하여 긴급모듈병원 형태의 '서울형 소아전용 외래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모듈병원으로 구축된 센터에서는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소아 COVID-19 환자에게 즉각적인 검사와 처치를 할 수 있으며 병상까지 마련되어 입원 치료도 가능합니다. 긴급모듈병원은 에어텐트 안에 음압 장치를 설치하여 장소에 구애 없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설치, 진료할 수 있으며,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의료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감염병에 관한 모든 시설을 집약한 독립적인 시설로서, 감염병에 대응하더라도 기존 일반 진료를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미래 감염병 시대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모듈병상의 경험을 살려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센터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학계, 전문가, 의료진이 합심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에 맞설 효과적인 방안을 구축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으로 긴급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협업, 이동형 병원 개발 사업

2021년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스마트 의료기기-이동형 병원 개발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동형 병원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으로 소형 SUV와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형 병원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동형 병원인 차량은 각종 스마트 의료기기가 탑재되어 다양한 진료와 검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원의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질병 진단부터 치료까지 통합 지원하는 '모바일 병원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 차량을 이용해 노령·질병·부상·출산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취약계층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업을 통한 이동형 병원 연구 개발 사업으로 병원 접근성이 낮은 의료 소외 계층들에게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을 향해 달려가는 미래 의료 서비스에서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국내 최고 사회적 의료기관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CT 검진 버스 '온드림 모바일 병원' 운행 출범

'온드림 모바일 병원'도 기술력과 협업을 통한 의료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21년 COVID-19에 대응하고 의료 소외 지역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온드림 모바일 병원'을 출범했습니다.

'온드림 모바일 병원'은 기존의 고정형 CT 장착 버스 또는 트레일러와는 달리 이동형 CT를 국내 최초로 버스에 탑재해 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CT 촬영 시 에어컨 등의 냉난방 기기로 인한 차내 감염 방지를 위해 특수 공조 설비를 설치하였고, 의료진과 운전기사 등과 접촉이 차단될 수 있는 구조로 차량을 개조하였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환자를 고려해 휠체어 리프트 기기를 장착해 편의성까지 높였습니다. COVID-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생활치료센터와 대구·경북지역 등을 찾기도 한 '온드림 모바일 병원'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취약계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앞으로도 사회 재난 대응을 넘어서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생각하며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Focus on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 시작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2022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일상생활 패턴과 주거환경 정보, 건강정보를 IoT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파악하고,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데일리 건강 문진 서비스, 응급 상황 대응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른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사마리안퍼스코리아와 함께 '긴급모듈병원 트레이닝 세미나'를 열고 감염병에 대처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시연하고 있다.



#10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새로운 터전, 제4병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의료 산업은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 증가와 미래 첨단 의료 기술 발달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고려대학교의료원은 ‘혁신적인 환자 중심의 병원’, ‘미래의학이 구현되는 스마트병원’으로 새로운 형태의 미래병원, 제4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 ‘제4병원’ 건립 추진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새로운 무대인 미래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스마트 진료 시스템을 갖출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자, 환자 보호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혁신 복합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특히 미래병원 건립 전략을 지역사회 기반에 두어, 지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생 의료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구상을 마친 미래병원은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연구시설, 기업 입주시설, 레지던스 및 마이스(MICE) 시설까지 총 6개의 센터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의료시설 내에는 급성기병원, 회복병원, 요양병원 등 끊임 없는 돌봄(Seamless Care)을 제공할 수 있는 병기별, 전문 질환별 병원이 설립됩니다. 선진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하고 의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융복합연구를 위한 임상시험센터, 임대형 실험실 및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마이스 시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선도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벨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병원에 입주한 연구자 및 환자 보호자 등을 위한 레지던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미래병원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첨단 의과학

연구 및 혁신 의료인재 양성이 실현되는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더 가까운 병원’으로 ‘공공성’ 확대

미래병원 건립 추진에 앞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의료 기관으로서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를 견인하고자 한 설립 배경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미래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 전반에 우리의 의술이 더 널리 이롭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암, 구로, 안산병원을 잇는 미래병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로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도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들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헬스케어 병원을 구현해 우리가 보유한 핵심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집약 및 특화하고, 그동안 높은 의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첨단의학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핵심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바이오메디컬 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래병원, 탄생과 함께 의료 산업의 새 시대를 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인류가 진정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의 모습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왔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사회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 ‘더 똑똑하고, 더 착한’ 병원의 모습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다가올 2028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의료 산업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국내 유일의 미래병원을 선보이겠습니다.



#11 최고의 연구개발로 만들어가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난제들이 존재합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의료 서비스로 미래의학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 정밀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2028년까지 세계 최고가 될 10개 분야 ‘Global 10 The Best’를 선정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넘어 ‘질병 없는 사회’로의 미래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K-MASTER 사업단과 P-HIS¹⁾로 대한민국 정밀의료 선도

국가 전략 프로젝트 K-MASTER 사업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주축이 되어 현대의학의 난제로 손꼽히는 암 맞춤 치료와 신약 개발 지원을 목표로 2017년 6월 출범하여 2021년 10월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전국 56개 대학병원 및 암 전문 치료 기관이 참여하여 암 환자 유전자 프로파일링 1만 건이라는 주요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공은 국내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환자 개개인에 최적화된 정밀한 암 치료 및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이하 P-HIS)을 개발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 하기도 했습니다. P-HIS 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협력의 힘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P-HIS 개발 및 구축을 통해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상급병원으로는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P-HIS는 성공적으로 의료 현장에 정착되었고,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21년 북미의료정보학회(HIMSS)의 병원 의료 시스템 디지털화 평가에서 세계 3위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바이오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궁극적으로 정밀의료분야의 새로운 사업화 모델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P-HIS 개발사업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이 2017년부터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 국책 사업으로, 고려대학교의료원을 중심으로 6개 의료기관, 삼성SDS, 비트컴퓨터 등 8개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의 참여로 개발했으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1만 건

암 환자 유전자 프로파일링 1만 건 달성

P-HIS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P-HIS 개발

세계 3위

세계 3위 의료 시스템 디지털화 평가



2023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안암병원 신관 ‘최첨단 융복합의학센터’ 조감도

완성형 스마트 인텔리전트 병원으로의 진화

P-HIS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의료 서비스에 접목해 최고 수준의 진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체계적 연구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암, 난치성 질병 등의 중증 질환에 대한 정밀의료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임상시험 및 신약 개발 등의 연구개발 분야 역시 큰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의료로봇의 경우 이미 의료현장의 항암제와 주사제 자동 조제 등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스마트 인텔리전트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완공이 예정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관 ‘최첨단 융복합의학센터’는 그러한 노력이 집결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를 향한 끝없는 도전, ‘Global 10 The Best’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지금까지 한 발 앞선 의료기술 연구개발로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의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차세대 의료성장의 동력이 될 Global 10 The Best를 설정,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또 한번 도약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Global 10 The Best



- 1. 암 정밀 진단, 치료** 정밀 암 진단과 치료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 개인 DNA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까지 고려한 빅데이터 분석 진단으로 맞춤형 치료법 도출
- 2. 클라우드 공유 병원정보시스템** 전 세계 병원 임상 정보와 연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클라우드형 공유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 3. 혈액생검** 비침습성 혈액생검 적극 도입으로 혈액 한 방울만으로도 진단 가능
- 4. AI 기반 신약 개발** 후보 물질 발견 시간의 획기적 단축, 환자 체질에 적합한 신약 개발
- 5. 페이스트 온 어 칩** 개발된 신약에 대해 반도체 제조 공정을 접목한 페이스트 온 어 칩 스크리닝 과정을 거침
- 6. 유전자 가위** CRISPR-cas9 효소를 이용한 유전자 가위 기술
- 7.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인체 내의 공생미생물과 질병과의 관계를 파헤쳐 인류 건강에 공헌
- 8. 3D 장기 프린팅** 환자의 줄기세포를 잉크로 활용한 3차원 장기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최적의 장기 이식
- 9. 웨어러블 소프트 로봇** 크고 무겁고 딱딱한 웨어러블 로봇 대신 유연한 착용형 로봇 개발을 통해 환자에게는 편안한 재활로봇을, 의사에게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센서 글러브를, 치료사에게는 환자 부축을 위한 근력증강 슈트(Suit)를 제공
- 10. 메모리 에디팅** 치매 지연 및 완화, 트라우마 치료, 기억상실증 치료 등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재활 치료를 가능한 영역으로 변화

#12 시대와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

시대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한 미래 경쟁력입니다.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캠퍼스를 자랑분 삼아 시대가 던지는 물음에 답하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초일류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업이기도 합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다양한 전문분야와 융합하고 화합하는 창의적인 미래 의학도를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태어난 '조선여자의학강습소'

1928년 조선여자의학강습소로 출범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교육구국'¹⁾ 정신으로 의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해방 후에는 '인술제민'²⁾이라는 설립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 퇴치에 앞장서 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암 전문 치료기관으로 명성을 쌓아가며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 명문 의료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일류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구국 정신에 힘입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해온 덕분입니다.

1) 교육구국(教育救國)은 교육을 통해 민중을 각성시키고 인재를 양성하여 국력을 신장함을 뜻합니다.
2) 인술제민(仁術濟民)은 의술로써 민중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각 병원과 연계한 의과대학 캠퍼스로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각 병원과 연계된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의학과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 이외에도 폭넓은 사고 능력과 창조 역량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중 안암 캠퍼스는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모든 병원과 대학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의 핵심 요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는 지하 6층, 지상 12층의 대규모 의료센터로 환자 맞춤형 신약 및 치료법 개발에 핵심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로 캠퍼스는 구로병원을 주축으로 한국형 의료실리콘밸리를 형성하고, 청담 고영캠퍼스는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전초기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계속해서 다져나갈 것입니다.

국제 학술 교류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국내를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디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와 융합·화합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세계 연구중심대학 연합체인 Universitas21(U21)의 국내 유일 회원 대학으로, 전 세계 11개국의 17개 연구중심대학과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호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학술 교류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전 세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 간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해 세계 주요 9개 의과대학과 함께 GAME(Global Alliance of Medical Excellence)를 창립하며 세계의학교육의 표준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의료원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 체계 구축을 활발히 이루며 전 세계 의학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

Universitas21(U21)

전 세계 11개국, 17개 연구중심대학

GAME

(Global Alliance of Medical Excellence)

세계 주요 9개 의과대학

창의적인 '보건의료 ESG 혁신 아이디어' 제안

우리 사회에 필수 가치가 되고 있는 ESG를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 덕목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주관한 '보건의료 ESG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직접 모교 병원에 적용 가능한 보건의료 ESG 사업을 직접 제안한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학생들의 손에서 탄생한 창의적인 ESG 사업을 토대로 새 시대에 걸맞는 이롭고 건강한 캠퍼스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ESG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주요 수상작

픽(PICK) 아이디어 ①

Kumes, 보건의료 ESG 기여도에 따른 포인트 적립 플랫폼

Kumes는 참여자가 ESG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할 시 즉각 포인트가 적립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를 통해 고려대학교의료원에서 추진하는 봉사, 교육 등 다양한 ESG 사업을 손쉽게 널리 알릴 수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 확인이 가능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픽(PICK) 아이디어 ②

KU-니터링 서포터즈

KU-니터링 서포터즈는 ESG 중 S(사회)에 초점을 맞춰 구상한 가상 사업입니다.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KU-니터링 서포터즈는 환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픽(PICK) 아이디어 ③

폐의약품 분리수거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의약품은 환경오염, 항생제 내성, 호르몬 약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평소 학생 및 교직원인 폐의약품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픽(PICK) 아이디어 ④

어린이 환자를 위한 업사이클링

어린이 환자를 위한 업사이클링은 병원 내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어린이 환자를 위한 장난감, 인형 등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환경교육 효과를 증진하고, 동시에 어린이 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중대성 평가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과 연계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중대성평가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표준 분석, 피어그룹 검토, 미디어 리서치 등을 토대로 최종 11개 이슈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STEP 1.

ESG 이슈 식별 및 이슈풀 구성

고려대학교의료원과 관련한 글로벌 ESG 평가와 공시지표, 피어그룹 벤치마킹, 미디어 리서치 등을 토대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토픽 11개를 이슈풀로 구성

• 지속가능경영 표준 분석

GRI Standards, UN SDGs, SASB, MSCI, S&P DJSI 등

• 피어그룹 비교

동종업계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이슈

STEP 2.

중대성 평가 진행

이슈풀로 선정된 11개 이슈에 대하여 교직원 및 ESG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 내부그룹 영향 중요도 분석

- 1) 대상: 교직원
- 2) 내용: 11개 토픽에 대한 영향 중요도 평가
- 3) 설문시기: 2022.11.09~2022.11.23

• 외부그룹 영향 중요도 분석

- 1) 대상: ESG 전문가
- 2) 내용: 11개 토픽에 대한 영향 중요도 평가
- 3) 설문시기: 2022.11.09~2022.11.23

STEP 3.

우선순위 도출

이해관계자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최종 순위를 결정

우선순위화

영향 중요도를 고려하여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11개 순위를 결정

제3자 검증

보고 내용은 제3자 기관의 검증과정을 거쳐 신뢰도를 확보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 결과 최우선 토픽은 ‘인권존중’, ‘의료 품질 및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보건’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어서 ‘임직원 관리 강화 및 인재 양성’, ‘탄소중립과 환경 배출물질 관리’, ‘윤리 및 청렴’, ‘개인정보보호’, ‘환자 만족도 향상’ 등으로 중요도가 식별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인권존중’, ‘의료 품질 및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보건’의 3가지 중대 이슈를 중점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임하고 있으며, 미흡한 영역은 과제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대 이슈 선정

순위	중요이슈	GRI Index	페이지
1	인권 존중	GRI 406 차별금지	
2	의료 품질 및 전문성 강화*	-	
3	산업안전보건	GRI 403 산업안전보건	

* 의료산업 특화 주제(Non-GRI)

우선순위 식별 결과

순위	중요이슈	영향
1	인권 존중	상
2	의료 품질 및 전문성 강화*	상
3	산업안전보건	상
4	임직원 관리 강화 및 인재 양성	중
5	탄소중립과 환경 배출물질 관리	중
6	윤리 및 청렴	중
7	개인정보보호	중
8	환자 만족도 향상	중
9	의료 R&D 확대 및 인프라 구축*	하
10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사회 공동발전	하
11	공급망 관리	하

이해관계자 분류 및 소통채널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해관계자를 환자, 직원, 의사, 공급업체, 지역사회, 정부 및 보건당국으로 분류하고 각 대상에 알맞은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 수집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은 의료원 정책 및 의사결정 전반에 반영되며 향후 이해관계자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소통채널을 확대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분	주요이슈	소통채널	주요 활동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만족도 향상 • 환자 개인정보보호 • 의료 접근성 및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간행물 • 유튜브 채널 • 브로셔 • 홈페이지 • 환자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 매거진 정기 발간 • 유튜브 채널 고대안산병원TV,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운영 • 건강정보 및 건강강좌 홈페이지 게재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모교실 등 제공 • 외래환자, 입원환자 고객만족도 조사, 환자경험 자체평가 실시 • 정보시스템 보안지침(환자 정보 보호) 제정 • 각 병원 PHIS(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 어플리케이션 ‘고대병원’ 출시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 • 일과 삶의 균형 • 임직원 직무 역량 개발 및 교육 • 조직문화 •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 제보시스템(윤리, 인권) • 임직원만족도 조사 및 교육 요구도 조사 • 교직원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교육,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원내 동호회 지원 및 커뮤니티 지원 • 해외연수 프로그램, 가족수당, 건강관리실 등의 복리후생 제공 • 간호부 근무개선 TF, 주52시간 근무개선 TF 등 노사문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TF 설치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 • 일과 삶의 균형 • 의료서비스 전문성 강화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간담회 • 회의 및 컨퍼런스 • 다학제 및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교원 간담회, 전공의 간담회 및 환영식 실시 • 임상교원 개인코칭 교육 제공 • 병원협의체 구성 • 연구중심병원 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 협력병의원 대상 교육 실시
공급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구매 • 협력업체 ESG 지원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및 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협력업체 대상 보건교육과 안전교육 지도 및 조언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 • 사회적약자 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업무 협약 • 지역사회 의료지원 • 지역사회 건강 교육 • 지역 교우병원, 동문병원 및 지역병원 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경 꿈 이룸 학교 등 운영 • 새터민, 장애인 등 지역 취약계층 의료지원 • 백신교육을 위한 백신혁신센터 유튜브 활동 등 • 지역 119 소방서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간담회 개최 •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의료교육 실시 • 지역 체육인 의료 서비스 상호협력 의료 협약
정부 및 보건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 국가 재난 위기 대응 • 국가 의료기술 발전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심포지엄 개최 • 응급환자 합동 출동체계 • 공동연구사업 및 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력 • 혁신형 의사과학자 등 공동연구사업 진행 • 서울시 외상체계 구축 테이블 미팅 개최 • 119특수구조단 합동 훈련 실시

주요 수상 및 인증 현황

수상실적

수상기관	주관	수상내역	일자
의료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활용 우수기관 장관상	2023.01.09
안암병원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 Society, HIM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MSS 디지털헬스지표(Digital Health indicator) 종합 2위 정보처리 상호운용성분야(Digital leader in Interoperability) 1위 예측 분석분야(Digital leader in predictive analytics) 1위 	2022.10.11
의료원	미국 머콤(Mercomm, Inc.)	갤럭시 어워드(2021 Galaxy Award) 브론즈 수상 (브로슈어 부문, 의료기관 유일)	2022.01.26
의료원	키노디자인센터	2021년 한국유니버설디자인 대상 (환경 디자인부분)	2021.11.30
의료원	동아일보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종합병원 부문 5년 연속 수상)	2021.02.25
안암병원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NCSI) 3위	2020.12.11
의료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0.12.01
안암병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제22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키노디자인센터)	2020.11.19
안산병원	동아일보	국민공감 캠페인 국민공감 경영대상 및 동반성장상	2020.08.25
안산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2020.08.10
의과대학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의학도서관상'	2020.04.24
안암병원	조선일보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종합병원 암센터 부문)	2020.04.09
의료원	동아일보	2020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종합병원 부문 4년 연속 수상)	2020.02.20

인증현황

수상기관	주관	인증종류	최초 인증일
의료원	보건복지부	• 'PHIS 1.0' 국내 최초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인증	2022.06.14
구로병원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비에스아이(BSI)	• 비유럽권 최초 국제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 실시기관 인증(ISO 13485) 획득	2021.07.27
의과대학	한국교육교육평가원	• 의과대학 의학교육평가인증 최고등급 6년 인증 획득	2020.12.30
의료원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 티유브이슈드(TÜV SÜD)	• 종합병원 세계 최초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ISO 14155) 및 재인증	2019.09.24 2022.09.16
의료원, 구로병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 및 갱신	2018.02.23
구로병원, 안산병원, 안암병원	임상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인증협회(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 AAHRPP)	• 임상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인증기관(AAHRPP) 전면 인증 및 재인증 획득	2017.12.26 2020.12.15
구로병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 (KOLAS)	• 의료서비스 국제표준 'ISO 15189' 인증	2017.12.10
구로병원	WHO 산하 기구 FERCAP	• 생명의학연구윤리 FERCAP 국제 인증 및 재인증	2011.11.23 2014.12.09
안암병원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 국내 최초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5차 인증 획득	2009.08.30

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 목표	고려대학교의료원 주요 활동	페이지
3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통한 국제 기준 이상의 진료시스템 입증 • 전국 유일 중증외상전문외수련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 • 바이오메디컬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꿈과 학습을 지원하는 병원학교를 통한 음악치료·미술치료 등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퇴원 후 적응과정 지원 • 소아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원 사업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안암캠퍼스) 운영 및 한국형 의료실리콘밸리(구로캠퍼스) 형성을 통해 의학 인재 양성 	
5 양성평등과 여권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 필수교육으로서 모든 교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직장 내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 실시 • 성평등 및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다양성위원회 설립 예정 	
6 식수와 위생시설 보장 및 수질개선, 수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변기 및 소변기, 세면대에 절수설비 도입으로 용수 사용량 절감 • 안암병원 2023년 3월 신관 공사 완료 후 우수 재사용으로 용수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갈 예정 • 구로병원은 계량기 및 검침 값 조회를 통해 병원 내 총 용수 사용량을 측정 및 모니터링 • 각 병원 및 의과대학은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폐수 배출 	
7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병원 태양광발전, 지열히트펌프, 연료전지 가동 • 안암병원 태양광발전, 지열히트펌프 가동 	
8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간호직)을 실시 •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 시행 	
9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과 포용적 산업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 시스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이하 P-HIS) 개발 • 현대자동차와 협력하여 스마트 의료기기-이동형 병원 공동 개발 연구 • 바이오메디컬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서울지역 유일의 개방형 실험실 구축) 	

UN SDGs 목표	고려대학교의료원 주요 활동	페이지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 국내 유일 파견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최초 의료지원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장애인 교직원을 위한 병원 환경 개선, 지역사회 연계한 장애인 지원 활동 등 • 안산병원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 울릴린 지역 의료봉사활동 • 안암병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과 삼척시 도계읍의 어르신들 의료지원활동 • 소아청소년 대상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 의료지원 사회공헌 활동 • ‘라오스 온드림 실명 예방 사업’ 등 국제보건사업 • (사)샘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남북 보건의료협력 실천, 남북의학용어사전 출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 등 통일의료를 위한 노력 	
12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문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에게 조사 발생시 지원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 • 구로병원 남은 병실 생활용품 나눔 캠페인, 약제팀 및 영양팀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등 ‘지구를 지키기 위한 ESG 실천 약속’ 캠페인 • 병원내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어린이 환자를 위한 장난감, 인형 등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업사이클링 사업 	
13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 저감 위해 사내 자동차 전기자동차 전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 기후위기 해결 기여를 위한 ‘잔반 ZERO’ 캠페인 • 대기오염과 건강 영향 상관성 연구,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인형극>과 같은 환경성 질환 교육 및 홍보 등 기후위기로 인한 질병 대응 연구·교육 • 안암병원 COVID-19 유행으로 잠시 보류했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사업 재개 • 에너지 절감을 위해 체감온도 낮추고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해 간편한 복장 출근을 장려하는 ‘캐주얼 데이’ 시행 	
15 지속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들이 함께 걸거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1인 1봉 플로깅 챌린지’를 통해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 감소 •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의약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 호르몬 약물 노출 등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폐의약품 분리수거 	
16 부정부패 저감 및 포용적 사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강령 제정 및 교직원의 윤리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심의하는 직원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계약업무의 규범 준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구매 규정, 협력병원 규정 제정 •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통한 협력업체 선정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부정청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채널 구비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운영 	

제3자 검증의견서

고려대학교의료원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고려대학교의료원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이하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보에 대한 책임은 고려대학교의료원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계약 및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 v3 및 KMR 검증 기준인 SRV1000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AA1000AP(2018)에서 제시하는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및 영향성(Impact) 원칙의 준수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 2021의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요주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GRI 403: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GRI 406: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고려대학교의료원의 협력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방법

한국경영인증원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대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평가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 보고서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 평가, 데이터샘플링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검증은 고려대학교의료원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고려대학교의료원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고려대학교의료원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보고서는 GRI Standards 2021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AA1000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본 검증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원칙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 및 기대 사항이 적절히 조직의 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원칙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미치는 주요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원칙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성과와 대응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이고 가능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향성 원칙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주제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영향을 정량화된 형태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 2. 대한민국, 서울
대표이사



고려대학교의료원
KOREA UNIVERSITY MEDICINE